2026학년도

단국대학교

논술 파이널

1강 2026학년도 모의논술
2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1
3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2
4강 2025학년도 모의논술
5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1
6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2
7강 2024학년도 모의논술

메가스터디 장진석 논술

2026 단국대 파이널

제 1 강 202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55점)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5점)

(2) [가]와 [나]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하여 [다]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350자 내외) (20점)

(3) [라]의 등장인물 '아내'(영혜)와 [마]의 '병국'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 각각 주변 인물들과 갈등을 겪는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아내'와 '병국'을 대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중략)……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중략)……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중략)……

다윈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중략)……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략)……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의 상호 관계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지는 않음을 알고 있었다. ……(중략)……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곳적부터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의 가치를 ……(중략)……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 찰스 다윈(1809~1882) : 영국의 생물학자. 생물의 진화를 주장하고, 자연 선택에 의하여 새로운 종이 기원한다는 자연 선택설을 발표하였음
* 조예(造詣) : 학문이나 예술, 기술 따위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이른 정도.

출처 : 방민호 외, 고등학교 독서

[나] 인종, 언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차이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렵고, 생활 양식, 가치관 등의 차이로 서로를 오해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문화에 관한 편견이나 이해의 부족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중략)…… 이러한 이유로 이주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여 여러 문화가 공존하면, 구성원의 문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또한 문화 간의 상호 작용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창조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여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파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따져보면 11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프랑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용광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파리는 매년 이슬람 금식 축제인 '라마단', 인도의 최대 명절인 '디왈리'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략)……

토론토는 주민 2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며, 샐러드 볼 정책*을 도입한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다. 토론토의 다문화 정책

은 우선 다양한 민족 집단에게 행정적, 사회적 차원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종합 시설의 설치, 축제, 교육 등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용광로(mehing pot) 정책 :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
*샐러드 볼(salad bowl) 정책 : 다양한 문화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정책.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자료 1)

장자(莊子)는 사람이란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사람의 앎(지식)은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물 속의 개구리와 함께 바다에 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사는 공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며, 매미와 함께 얼음에 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사는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중략)…… 사람은 축축한 곳에서 잠을 자면 피부병도 걸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사람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지만 원숭이도 그러한가?"

사람은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의 앎(지식)이 달라지며, 또한 사람과 다른 존재자들의 삶의 조건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물 속의 개구리와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지만, 사람은 물 속에 있으면 죽는다. 삶의 조건이 다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옛 성인은 그 능력과 일을 획일화하지 않았다."라는 장자의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 손영찬 외, 고등학교 사회 문화 (출제진 재구성)

(자료 2)

다양한 가치와 규범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요청된다. ……(중략)…… 원효는 불교의 여러 교설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쟁사상(和諍思想)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가 옳고 그르다는 시비(是非)의 다툼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 자신만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러 교설은 모두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깨달음이라는 점에서 한마음[一心]이다. 이처럼 원효는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융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갈등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 대한 집착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서로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자료 3)

한스 큉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 간의 조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종교의 자아비판이다. 즉 자신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단호한 자아비판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정당하다. ……(중략)…… 다른 종교를 거짓된 것으로 배척하는 독선적 태도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종교의 진리도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성숙한 종교 의식이라 할 수 없다.

출처 : 차우규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자료 4)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공감sympathy)이란 우리가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자연적 성향이다. ……(중략)…… 내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에서 어떤 감정의 결과를 볼 때 나의 마음은 즉시 이런 결과로부터 이것의 원인으로 나아가 그 감정에 관한 생생한 관념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곧바로 감정 자체로 전환된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내가 감정의 원인을 지각할 때 나의 마음은 그 결과로 나아가 그 결과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중략)…… 즉, 타인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공감을 일으킨다. 흄은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있으므로 사회의 행복에 유용한 행위가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출제진 재구성)

(라) (앞부분의 줄거리) 아내[영혜]는 겉보기엔 평범한 성격의 가정주부이다. 아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면서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된다. '나'는 이런 아내를 못마땅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나'와 아내는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게 된다.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꿨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네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중략)……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장모와 처형의 설득은 아내의 식습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말이면 장모는 나에게 전화해 물었다.

"영혜가 아직도 고기를 안 먹나?"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흥분한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 나와 나에게도 들렸다.

"뭐하는 짓이냐,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 나이에 정 서방은 어쩌란 말이냐?"

아내는 “예.”라고도 “아니요.”라고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 거냐?”

부엌의 국 냄비가 끓었으므로 아내는 말없이 수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상대 없이 애처롭게 고함치고 있는 장인을 위해 나는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니야, 내가 면목이 없네.”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오년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과 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배려의 말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까지 받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내가 월남에서 베트콩 일곱을…… 하고 시작되는 레퍼토리를 사위인 나도 두어 번 들은 적이 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열여덟 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 ……그러잖아도 내달에 올라갈 테니, 그때 앉혀 놓고 얘길 해 보겠네.”

(뒷부분의 줄거리) 처형네에서 장인은 아내에게 육식을 강요하지만 그녀는 끝내 거부하다가 자기 몸을 다치게 한다.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장모는 고기를 달인 한약을 먹이려고 시도한다. 한약 한 모금을 마시고 먹은 것을 모두 토한 그녀는 ‘나’가 잠든 사이 병원 앞 벤치에서 피 묻은 새를 쥔 채 발견된다.

출처: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

[마] (앞부분의 줄거리)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에는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병국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후,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생활한다. 그러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진강의 철새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지난여름, 한창 더위가 찔 무렵이었다. 비(B) 공단 성창 비료 서교 공장 노무과장이 어깨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느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그날은 종옥이가 시장에 가고 없어 나 홀로 집을 지키던 참이었다.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도대체 어떤 위인인지 상판이나 좀 봅시다.”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인데 당신네는 누, 누구요?”

기세에 눌려 내 목소리가 더욱 더듬거렸다.

“당신 자식이람 아직 마빡이 새파란 놈이겠군.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젊은이가 윽박질렀다.

"아들은 지, 지금 집에 없소.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요?"

"그 자식 간 데를 불어요. 당장 작살을 내고 말 테니."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방과 건넌방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중략)……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 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사본 좀 보십시오."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성창 비료 서교 공장은 연간 사십 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어*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샜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관계 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소?"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했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이더군요. 지난 유월에는 풍천 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나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기가 막혀서. 뭐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 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 말했다.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

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릴 뽑아야 해!"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그들은 병국이 소재를 두고 다시 한차례 이구동성 삿대질하며.

그놈이 돌아올 자정까지라도 기다리겠다며 세 젊은이가 마루로 올라왔다.

"선생, 진정도 진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 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고의로 몰아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자제분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선생도 지난 번 반상회엘 나갔다면 우리 비(B) 공단에서 돌린 공문을 받아보았을 겁니다. 공단측에서도 공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폐수·풍속측정 등 팔대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또 오염 가능 지역을 삼 단계로 분류하여 오백여 가구 이주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점도 읽으셨겠죠?"

노무과장이 숨을 돌리더니 담배를 꺼내어 한 대를 자기가 물고 한 대를 내게 권했다. 그로부터 그들은 한 시간 남짓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노무과장은 이론을 앞세운 설득으로, 세 젊은이는 힘을 과시한 위협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 진정서 : 실점이나 사점을 진술하여 적은 글
* 야음 : 밤의 어둠.
* 출어 : 물고기를 잡으러 배가 나감.
* 검증 : 검사하여 증명함.

출처: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

문제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45점)

(1) [가]를 활용하여 [나]의 주장과 [다]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5점)

(2) [라]에 나타난 A, B 두 정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의 자료 1~4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단, A, B 두 정당의 주장에 대응하는 [마]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400자 내외) (20점)

(가) 각국은 생산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다.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국가별로 각자의 특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현상이나 관계를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데,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이 더욱 활발해진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갑국과 을국의 사례로 확인해 보자. 갑국과 을국의 쌀과 물고기 생산의 기회비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갑국이 쌀 1만 톤을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물고기의 가치, 즉 기회비용이 을국보다 더 작으므로 쌀 생산에는 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다. 반면, 물고기 생산에 대해서는 을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다.

생산량	갑국의 기회비용	을국의 기회비용	비교 우위 국가
쌀 1만 톤	물고기 1만 톤	물고기 2만 톤	갑국
물고기 1만 톤	쌀 1만 톤	쌀 0.5만 톤	을국

(표 1) 쌀과 물고기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과 을국이 1년 동안 자급자족을 위해 6개월씩 쌀과 물고기를 생산하여 갑국은 쌀 25만 톤, 물고기 25만 톤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을국은 쌀 15만 톤, 물고기 10만 톤을 생산하여 소비하였다. 자급자족하던 두 국가가 서로 비교 우위 품목을 특화하여 무역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 국가는 쌀과 물고기를 2:3의 비율로 교환하기로 정하였으며, 비교 우위에 기초해 특화하여 교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적으로 비교 우위에 기초해 특화와 교환을 하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한다.

구분	무역 이전 (생산=소비)		특화(생산)		무역 이후(소비)	
	쌀	물고기	쌀	물고기	쌀	물고기
갑국	25	25	50	0	30	30
을국	15	10	0	40	20	10
전체	40	35	50	40	50	40

(표 2) 비교 우위에 따라 특화하여 무역한 결과 (단위: 만 톤)

출처 : 박형준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나) 우리나라는 면적이 적고 백성은 가난하여 농사를 짓는 데 재사(才士)를 쓰고 상공을 통하여 나라 안의 이익을 용통하게 하더라도 부족해질 것이다. 반드시 먼 지방의 물자가 유통한 후에 재화와 재물이 증식하고, 백 가지 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 ……(중략)……

단지 중국의 배만 통상하고, 해외의 모든 나라와 통상하지 않는 것은 역시 일시적인 술책이고, 정론은 아니다. 국가의 힘이 조금 강해지고 백성의 생업이 안정되면 차례로 이를 통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처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출제진 재구성)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모퉁이 땅에 편협한 기질을 타고나, 발은 중국 대륙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눈은 중국의 사람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국경 안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은 다리가 길고 까마귀는 검은 것이 각자 자기의 천성을 지키는 것이고, 우물 안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는 오직 자기 땅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예(禮)는 차라리 소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른바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四民)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 있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구차해졌다.

* 이용후생(利用厚生) :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출처 :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

컨테이너는 볼품없이 생긴, 그 자체로는 매력을 찾기 어려운 철제 상자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 컨테이너가 세계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컨테이너는 세계 곳곳으로 쉽고 간편하게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항구를 재편하였다.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운송비, 보관비 등 물류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은 급증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화에 기여하였고, 소비자인 우리가 수많은 상품을 더욱 값싸게 사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출처 :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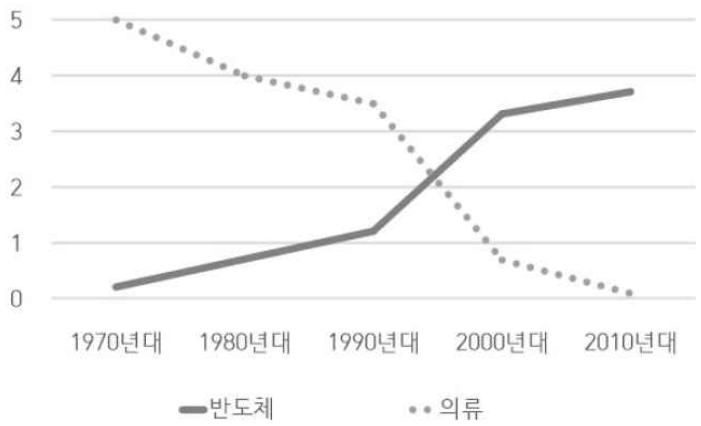
(다) 1960~1970년대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수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때에는 주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의류, 신발, 합판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수출을 이끌었다. 1970~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변화>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위	의류	의류	의류	반도체	반도체
2위	합판	철강판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3위	가발	신발	신발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
4위	철광석	선박	영상기기	선박	무선통신기기
5위	전자제품	음향기기	선박	석유제품	석유제품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우리나라 반도체, 의류 산업의 비교 우위 지수* 변화>



* 비교 우위 지수 : 세계 전체 수출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함.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라) 나라에서는 어떤 무역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정당들은 서로 다른 무역 정책을 담은 선거 포스터를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였다. A 정당은 시장 개방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B 정당은 시장 개방이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피해를 강조하였다.

(그림 1) A 정당 선거 포스터

(그림 2) B 정당 선거 포스터

(그림 1)은 A 정당의 선거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에서 두 가게의 풍경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왼쪽의 '자유 무역 가게'는 물건을 사려는 고객들로 북적이는 반면, 오른쪽의 '보호 무역 가게'는 손님이 끊긴 채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세무 공무원을 맞이하는 주인의 난처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A 정당은 각국이 비교 우위의 원리에 따라 자유 무역을 실현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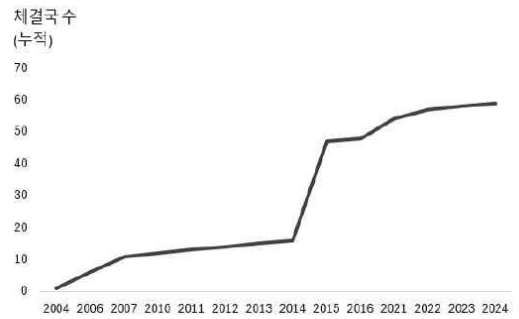
반면, (그림 2)는 B 정당의 선거 포스터로, 외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나라 노동자의 소외된 모습을 담고 있다. B 정당은 자유 무역이 경쟁력이 낮은 자국 산업을 위협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면서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B 정당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민 경제 발전,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관세나 무역기술장벽(TBT)* 등 무역을 직접 통제하고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보호 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그리고 이를 잘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적합성 평가절차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임.

출처: 중앙선데이, 2015. 12. 13. 등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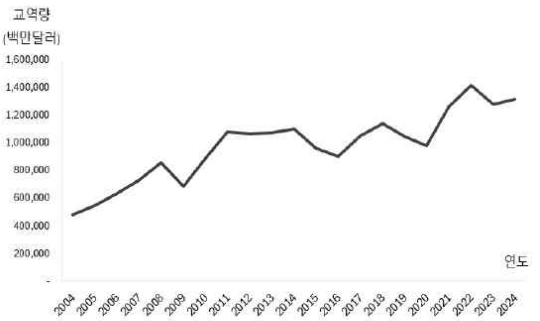
(마) (자료 1)

<대한민국 연도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누적)>



출처: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대한민국 연도별 교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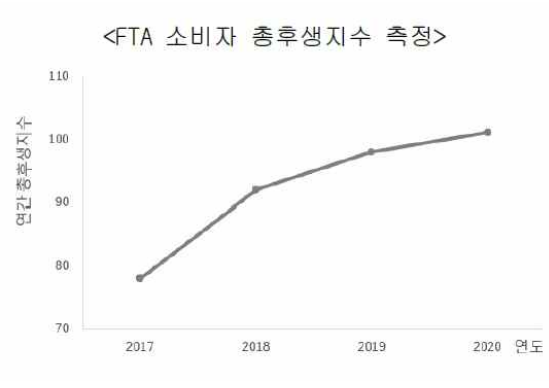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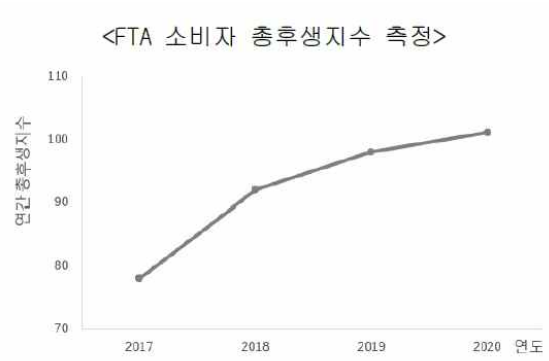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경제 통합 협정을 말함.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자료 2)

관세의 하락이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총후생지수는 이처럼 무역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득이 포함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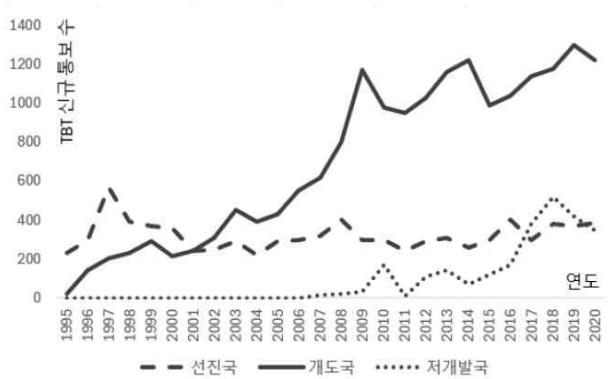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1. 6. 30 (출제진 재구성)

(자료 3)

개도국 등의 전체 무역기술장벽(TBT)의 신규 통보 건수는 2001년 이후 선진국을 넘어 섰고, 저개발국은 2017년 이후 선진국을 넘어섰다. ……(중략)……

개도국 등은 자국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자국 생산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써 선진국의 표준이나 기술 규제를 도입해 활용한다.

<연도별 TBT 신규 통보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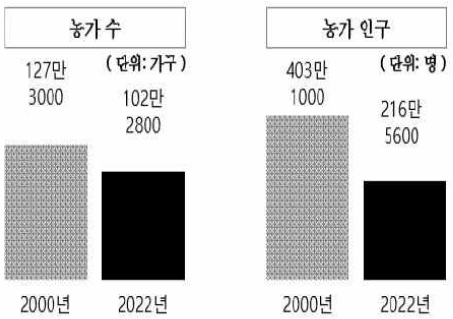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 이슈 보고서-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과제 (출제진 재구성)

(자료 4)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지난 20년간 농식품 교역액이 3배 가량 증가하고 교역국과 수출입 품목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농가 수와 소득 등 국내 농촌 경제는 크게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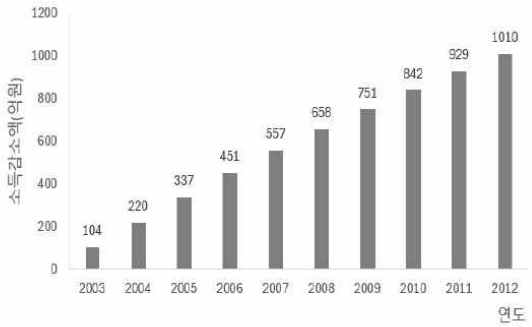
출처: 경향신문, 2024. 6. 17.

<농가 규모 현황>



출처: 『경향신문』, 2024. 6. 17. (출제진 재구성)

<과실 생산농가 소득감소액>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칠레 FTA 농업부문 영향평가』(출제진 재구성)

제 1 강 2026학년도 모의논술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문항 해설

1)번 문항(15점)

○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과학 칼럼니스트 이은희의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경쟁과 불평등의 근원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저자는 다윈의 연구가 획일성보다는 생물체 변이의 다양성, 생태계와 생물체 간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이를 근거로 다윈의 진화론이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에 필수적인 공존의 논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 〔나〕는 다른 인종,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은 다양한 사회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는 문화 선택의 기회 확장, 문화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창조적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 사회 정책의 예로는 융합된 문화 정체성을 지향하는 '용광로 정책'에서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 간의 조화와 공존을 중시하는 '샐러드 볼 정책'으로 전환한 프랑스 파리, 최초로 '샐러드 볼 정책'을 시행해 사회 시설, 문화 행사,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민족에게 동등한 사회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캐나다 토론토를 제시하고 있다.

2)번 문항(20점)

○ 1)에서 요약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각각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의 (자료1)은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장자 사상을 언급한 글이다. 장자에 따르면, 각 개인의 본성과 환경에 따라 기준과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즉, 장자의 사상은 각자의 방식에 따라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서로 다른 존재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다〕의 (자료2)는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원효 역시 자신에 대한 집착과 타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장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원효의 화쟁사상은 차이를 그 자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반되어 보이는 교설들도 사실 큰 틀에서는 서로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편견을 버리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만들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 [다]의 (자료3)은 종교적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한스 큉의 글이다. 큉은 종교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종교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기비판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자기비판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종교적 견해에 대한 평가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큉의 생각이다.

○ [다]의 (자료4)는 데이비드 흄의 공감(sympathy)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흄에 따르면, 내가 누군가와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은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상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기쁨을 느끼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슬픔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슬픔을 느끼는 것이 공감이다. 흄은 우리가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3)번 문항(20점)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의 등장인물 '아내'와 [마]의 '병국'을 대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항이다.

○ [라]는 육식을 거부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비난하고 설득하는 주변 인물들의 폭력적 시선을 드러낸 소설의 한 장면이다. '나'는 채식주의자인 아내를 못마땅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나'의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불편해하는 기색을 드러낸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 어떤 이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골고루 먹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만하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육식을 '혐오'하는 채식주의자와 밥을 먹는 것은 '끔찍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내'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의 장모와 처형은 '아내'를 설득하고, 장인은 '아내'를 호통친다. 채식주의자인 '아내'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는 [가]와 [나]에 제시된 '다양성'과 '공존'의 관점에서 보면 '획일성'을 강요하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 [마]는 산업화 과정에서 불거진 환경 오염으로 인해 동진강의 새나 물고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병국'(화자의 아들)의 가치와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여기는 비(B) 공단 사람들의 가치가 부딪치는 상황을 드러낸 소설의 한 장면이다. 제시문에는 '나' 혼자 집을 지키던 어느 날, 비료 공장 노무과장과 그가 대동하고 온 젊은이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아들 '병국'의 상관이나 보자며 주먹을 내두르는 모습부터 보인다. '나'는 이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젊은이는 당장 작살을 내고 말 기세로 '병국'을 찾는다. 노무과장은 '병국'이 낸 진정서를 '나'에게 보이는데, 진정서에는 공장이 폐기 처리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 점, 그 일로 동진강 하류에서 작업하던 어민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벌어진 점, 공장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노무과장과 젊은이들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병국'의 문제 제기를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미친놈 짓거리'라며 폄하한다. 노무과장은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샌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며,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론을 앞세워 설득'하려는 노무과장이나 '힘을 과시'하는 젊은이들의 태도는 〔가〕와 〔나〕에 제시된 '화합', '공존'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가치나 논리를 무시하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진화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찰스 다윈의 연구가 생물체 변이의 다양성, 생태계와 생물체 간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은 획일성과 경쟁보다는 다양성과 화합, 공존의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는 보다 창조적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파리와 토론토의 예를 제시한다. (250자)

2번)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존재자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장자는 각 개인의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한다. 반면 원효는 상반되어 보이는 생각들도 큰 틀에서는 서로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편견 없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만들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실수를 성찰적으로 판단하는 자기비판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흄은 타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공감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347자)

3번) 예시 답안

〔라〕에서 '나'의 회사 사람들은 '아내'의 채식주의를 본능을 거스르는 것,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며 다름을 비정상으로 규정한다. '장인'은 육식을 설득하고 강요하기까지 한다. 〔마〕에서 공단 사람들은 환경을 위해 진정서를 낸 '병국'의 행동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미친놈 짓거리로 규정한다. '아내'와 '병국'의 주변 사람들은 공존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보다 획일성을, 화합보다 자신들의 가치만 옳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융합적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나 논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상대의 입장과 가치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397자)

[문제 2] 문항 해설

1)번 문항(25점)

○ [가]는 '비교 우위론'을 통해 국제 분업과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나]의 첫 번째 지문에서는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해외 국가들과의 통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지문에서는 박지원이 이를 적극 지지하며 국가 간 개방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지문에서는 마크 레빈슨의 「더 박스」를 통해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국제 협력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나]는 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가]의 비교 우위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각 국가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를 생산하고 무역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교환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되며, 더 다양한 재화를 낮은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또한 증진시킨다.

○ [다]는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 품목과 함께 반도체와 의류 산업의 비교 우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가]의 '비교 우위론'을 활용하면, 2010년 이후 의류가 5대 수출 품목에서 제외되고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게 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한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함으로써 무역에서 이익을 얻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의류 산업에서의 비교 우위를 점차 상실했고, 기술력과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교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 자원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인 반도체 분야로 집중되었고, 이는 수출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 [가]의 비교우위론을 활용하여 [나]의 주장과 [다]의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2)번 문항(20점)

○ [라]의 A 정당은 영국 자유당이고, B 정당은 영국 자유 유니언 주의자당이다. A 정당은 자유 무역주의와 B 정당은 보호 무역주의의 입장에서 경제에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 [마]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각 정당의 입장에서 이점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나〕는 국경을 넘어 해외 국가들과 통상을 하면 국가 경쟁력과 국제 협력이 증대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에 따르면 각 국가는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교 우위 상품에 특화하고 분업하여 생산량을 늘린 뒤 자국이 생산한 상품을 다른 국가와 교환함으로써 거래 당사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서 주장하는 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과 반도체 및 의류 산업의 비교 우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아 비교 우위가 있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기회비용이 높은 의류를 수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출 품목이 변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04자)

2번) 예시 답안

〔라〕의 A 정당은 자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점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마〕의 자료1, 자료2이다. 자료1은 자유 무역을 통해 무역 교역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어 수출시장이 확대됨을 설명하고, 자료2는 소비자 후생지수의 연도별 증가를 통해 같은 제품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B 정당은 자유 무역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보호 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자료3, 자료4이다. 자료3은 개도국이 자국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수립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료4는 FTA로 인한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 경쟁력 약한 산업인 농업이 위험에 처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417자)

2026 단국대 파이널

제 2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1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0점)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중략)…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중략)……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 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생활의 짐은 한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 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중략)……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버렸을 것인가.

* 웃자라 : 쓸데없이 보통 이상으로 많이 자라 연약하게 되어.

출처 :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

[나] 조선 시대의 최고 과학자 장영실은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위인으로 손꼽힌다. 동래현 관노*에서 종3품까지 오른 장영실이지만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장영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의외로 처벌에 관한 것이다. 새로 만든 세종의 가마가 시험 운행 중 부서지자 장영실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이 곤장 80대를 맞고 파면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장영실이 파면된 해에서 약 600년이 지나 4차 산업 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실패를 허(許)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혁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 연구 개발 성공률은 96퍼센트라고 한다. 얼핏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이다.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20퍼센트에 그쳐 70퍼센트에 근접한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구 가치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중략)……

만약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락했다면 어땠을까. 부서진 가마가 자동차로 태어나지는 않았을지, 조선형 소총이 개발되어 임진왜란의 고초*가 없지는 않았을지,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나지는 않았을지…….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을 앞에 둔 지금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자.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의 쓴맛은 성공의 확률을 그만큼 더 높여 주는 법이다.

* 관노(官奴): 관노비. 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 파면(罷免)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되다.
* 허(許)하다: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다.
* 고초(苦楚):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 : 박영민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다] 훈이가 고등학교 이 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대.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사람이 어떡허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떡허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선데, 내 이웃은 우거짓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배 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떡허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훈이가 내 말의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 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중략)……

어머니는 나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이 년이나 놀리고 나서 취직이라고 시켜 준답시고 어떤 삼수갑산으로 귀양을 보냈기에 이렇게 한 번 다니러 오지도 못하느냐고 하기도 했고, 집세만 받아먹어도 굶지는 않을 텐데 그게 어떤 귀한 자식이라고 객지로 노동벌이를 보냈느냐고도 했다. ……(중략)……

훈이가 젖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 병폐(病弊):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직이나 사물의 내부에 생긴 폐해.

출처 : 류수열 외, 『고등학교 국어』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각각 평가하고, [라]를 활용하여 [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콩트, 뒤르켐, 파슨스를 포함한 기능주의자들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기능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을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로 보고,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이러한 규범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많은 기능주의자들은 계급, 인종, 젠더에 기반을 둔 사회 불평등이나 사회적 분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정과 사회적 질서에만 주목했다. 불평등은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사회적 희소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필요하며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이며,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은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한 것으로 본다. 기능주의는 사회 질서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기존 질서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 · 문화』 (출제진 재구성)

[나] 갈등론은 한 사회에서 희소 가치를 많이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갈등론은 한 사회의 재화, 권력과 같은 희소 가치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고 본다. 사회의 안정과 유지는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을 통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 결과라는 것이다.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억압에 대하여 피지배 집단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갈등론에서는 사회 운동이 사회 집단 간의 지배와 억압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이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 희소 자원이 직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되며, 분배 기준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 아닌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갈등론은 사회 구성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인한 집단 간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출처 : 신형민 외, 『고등학교 사회 · 문화』 (출제진 재구성)

[다]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학생의 정서불안과 낮은 교육성과 등 우리나라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입시경쟁은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 특히 2023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읍면지역보다 1.8배 높았고, 서울 내 고소득층(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은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 원 미만)보다 2.3배 더 많이 지출했다. 이러한 사교육 불평등은 소득 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201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의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되었다. 2018년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4. 8. 27.

[라]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에서는 복지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다. 개인은 생명 · 자유 · 재산권 이외에도 사회 · 경제적 권리,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

지하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롤스(J. Rawls)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평등한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기회 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시하는 국가이다. 그는 선천적 능력, 가정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취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우연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교육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판례집』(출제진 재구성)

문제 3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고, [라]의 관점에서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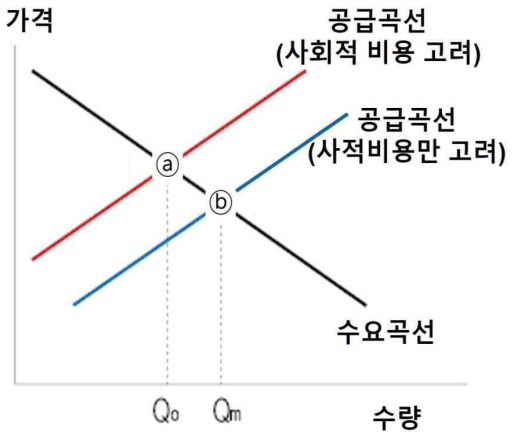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 또는 소비된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공급 또

는 소비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공급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환경은 공급자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공급자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중략)… 공급 과정에서 투입된 요소 등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사적비용이다. 그러나 공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발되는 손해는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공급자의 사적비용 + 외부 불경제에 따른 비용(외부비용)'이 된다.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균형점
ⓑ = 사적비용만 고려한 균형점
Qo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급량
Qm = 사적비용만 고려한 공급량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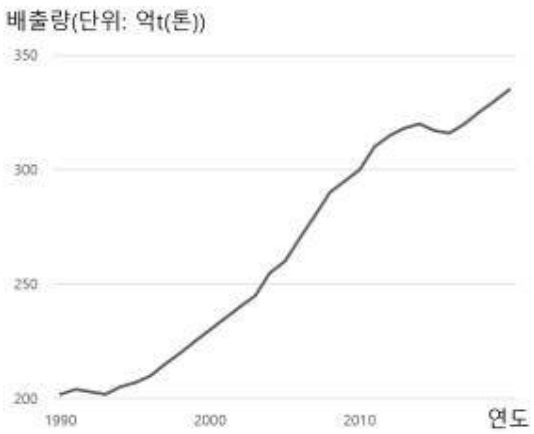
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해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출처: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나]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는 주로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 대상인 주요 온실가스는 탄소를 포함해 총 6가지 물질이다. …(중략)… 2021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황을 살펴보면, 탄소가 약 7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3. 8. 8. (출제진 재구성)

<탄소 배출량 추이>



출처:『연합뉴스』, 2021. 4. 20.
(출제진 재구성)

<전 세계 기후 변화>

출처:『매일경제』, 2021. 7. 22.

[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그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제품의 생산원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탄소세를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에 여러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

출처:『동아일보』, 2018. 8. 15. (출제진 재구성)

<탄소세 도입 국가>

국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도입 연도	1990	1991	1992	2008	2010	2012	2014	2015

출처: 『경향신문』, 2020. 11. 11.

[라]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의 자원 이용과 개발 수준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등과 환경 보전, 경제 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고, ② 정부, ③ 기업, ④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출처: 구정화 외,『고등학교 통합사회』(출제진 재구성)

[마]

(자료 1)

교토의정서는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이지만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중략)…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탄소 배출 감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중략)…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뉴시스』, 2015. 12. 13. (출제진 재구성)

<탄소누출 현상>

탄소누출은 기업이 생산 시설을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옮기면서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출처: 『포스코 뉴스룸』, 2024. 3. 21. (출제진 재구성)

(자료 2)

정부는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며,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간접 자본(SOC)*을 제공하기도 한다.

* 사회 간접 자본: 항만,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재.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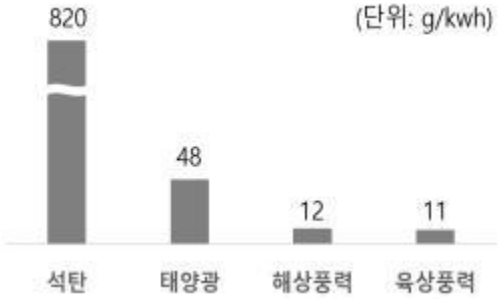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출처: 신정엽 외, 『고등학교 세계지리』

<주요 에너지별 발전량 비중 전망>

출처: 『헤럴드경제』, 2023. 1. 12. (출제진 재구성)

<에너지별 탄소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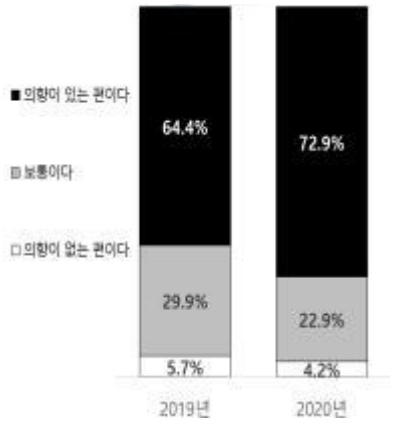
출처: 『서울경제』, 2017. 8. 16. (출제진 재구성)

(자료 3)

기업은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좋은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기술 개발,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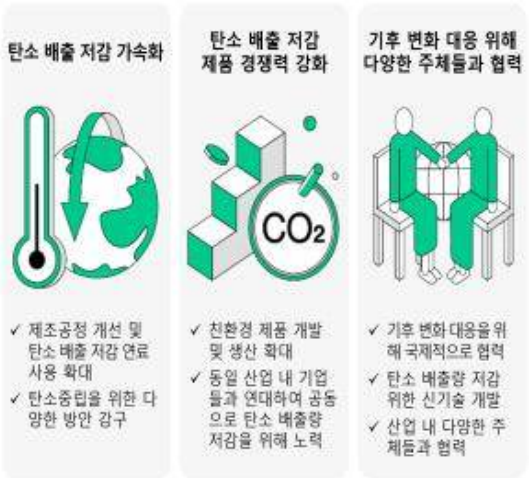
<윤리적 소비* 의향 조사>



* 윤리적 소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지구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

출처:『매드타임스』, 2020. 7. 29

<A 기업의 지속 가능 전략>


탄소 배출 저감 가속화
✓ 제조공정 개선 및 탄소 배출 저감 연료 사용 확대
✓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탄소 배출 저감 제품 경쟁력 강화
CO2
✓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생산 확대
✓ 동일 산업 내 기업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
기후 변화 대응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
✓ 탄소 배출량 저감 위한 신기술 개발
✓ 산업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출처:『A 기업 홈페이지』(출제진 재구성)

(자료 4)

<일상생활 속 개인 탄소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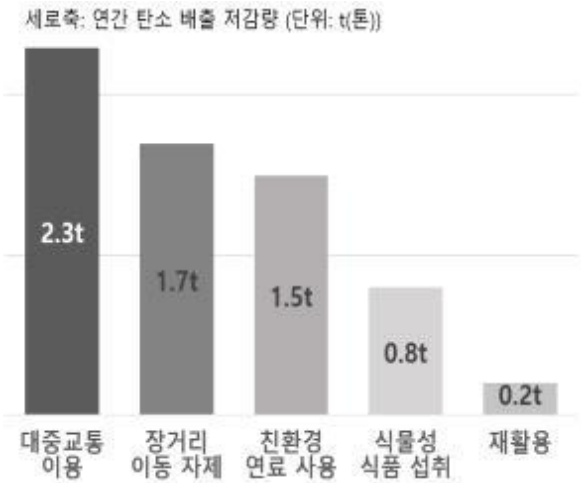
탄소발자국 계산 결과	
자가용(1500cc 중형)으로 휘발유 40만 원어치 소비	450.67kg (163그루)
5만 원어치 전기 사용	33.26kg (122그루)
1만 원어치 가스 사용	5.06kg (22그루)
기차로 100km 이동	2.26kg (1그루)
버스 20회 탑승	1.15kg (0그루)
지하철 20회 탑승	0.04kg (0그루)

- 한 달간 사용 기준으로 가정해 계산했을 때의 수치임.
- 괄호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 심어야 할 소나무.

* 탄소발자국: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 의미.

출처:『동아일보』, 2015. 12. 11.
(출제진 재구성)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른 탄소발자국 변화>



출처:『BBC 뉴스코리아』, 2023. 5. 20.
(출제진 재구성)

제 2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1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국어』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및『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글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및『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는『고등학교 국어』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고등학교 국어』교과 '(5)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이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부분에 나오는「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서 '설득하는 글' 부분에 나오는「실패를 허하라」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다룬 1970년대의 소설이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인물의 삶에서 세상을 읽다' 부분에 나오는「카메라와 워커」에서 발췌한 글이다.

2. 문항 해설

1)번 문항

○ 문항 해설 (10점)

- 제시된 지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유년 시절 탱자나무 가시에 얽힌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교훈을 이끌어낸 수필이다. 제시문에서는 어린 시절 탱자 가시에 찔린 고통과 살면서 마음속에 지녀왔던 '가시'를 통해 고통이 오히려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화가 로트레크 역시 절망을 딛고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그림을 남겼다고 한다. 글쓴이는 고통을 피하고 외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날카로운 가시를 통해 오히려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 [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며, 혁신을 위한 도전을 막는다며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 시대의 최고 과학자 장영실이

세종의 가마가 부서진 책임을 지고 곤장 80대를 맞고 파면된 역사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 연구 개발 성공률은 96퍼센트이지만,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글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이 땅 위에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번 문항

○ 문항 해설 (20점)

-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6.25 전쟁의 비극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남기고 간 상처로 인해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나'는 오빠 부부가 사망하자 젖먹이로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운다. '나'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문과 출신이었던 오빠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훈이'는 이과를 선택해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제시문에서 '나'는 이공계가 취직도 잘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며 '훈이'를 설득한다. '훈이'는 고모의 강요가 못마땅하면서도 순응한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 달리 '훈이'는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고 취직도 잘 되지 않아 집을 떠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 '나'는 '훈이'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제시문에서 '나'는 가족의 '가시'인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 문과 출신인 것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훈이'가 문과를 선택한다면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어려울까 두려워한다. '나'는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라는 '가시'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 조카 '훈이'에게 이과를 강요했으나 '훈이'의 진로는 평탄하지 않았고, 이후 고된 삶을 살고 있기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번 문항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오히려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고통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에서 국가 발전과 성장을 위해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시행착오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10점
2)번 문항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다]에서 서술자는 문과 출신이었던 오빠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조카 '훈이'를 이과에 보내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를 활용해 서술자가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라는 '가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조카 '훈이'에게 이과를 강요했으나 서술자의 기대와 달랐기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를 활용해 서술자가 시행착오나 실패 없는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조카를 양육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2]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와 [나]는『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는『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와『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과 (4) '사회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2. 문항 해설

○ 문항 해설 1 (20점)

- [가]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며, 사회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을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로 보며,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강조한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 희소 자원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필요하며 당연한 것으로 보며, 분배 기준은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한 것으로 본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다. 갈등론은 사회적 관계의 속성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고, 사회 안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에 주목한다. 갈등론은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 결과'로 본다.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 희소 자원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된 것이며, 분배 기준은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본다. 집단 간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다]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특정 사회.문화 현상이나 사건을 설명한 자료를 읽고 서로 다른 두 관점(기능론과 갈등론)에서 각각 그것을 설명하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입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시문이다. 제시문에 사용된 사회 불평등은 고교 교육과정에

서 학습하는 사회 불평등의 다양한 양상 중 '교육 기회와 수준'에 대한 사회.문화적 불평등이다.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기능론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분배 기준은 구성원 간 합의된 것으로 공정하다고 보지만,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된 결과이며, 분배 기준 또한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

○ 문항 해설 2 (10점)

[라]는 사회 불평등 현상과 관련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라]에서 국가관과 정의관에 따르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며,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의 내용을 보면, 현대 복지 국가관에서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국가의 주요 역할'이라는 점, 롤스의 정의관에 따르면 '기회 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라는 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제2문 첫 번째 질문의 배점은 20점이며, 이는 다시 '기능론과 갈등론의 핵심 내용과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10점), '사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각 관점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평가'(10점)로 나누어 채점 기준을 설명함 - [가]의 기능론, [나]의 갈등론의 핵심 내용과 각 이론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의 기능론의 내용과 사회 불평등 현상을 '유기체',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 '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 '기득권의 집단 논리'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모든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님) . [나]의 갈등론의 내용과 사회 불평등 현상을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갈등',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 '지배 집단의 가치 반영',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모든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님) - 사회 불평등 현상 중 교육 기회 불평등에 대한 요약 설명과 [가]와 [나]의 관점에 따라 사회 불평등을 각각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내용에 대하여 '사교육비 증가', '교육 기회 불평등', '부모의 경제적 효과의 결과', '거주지역 효과'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하고, [가]의 기능론의 관점, [나]의 갈등론의 관점을 비교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내용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와 [나]의 관점에 따라 사회 불평등을 논리적으로 잘 평가하였다면 10점을 부과할 수 있음 -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가]의 기능론은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나]의 갈등론은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결론뿐만 아니라, [가]와 [나]의 이론이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한 것에 대한 근거, 즉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기능론의 경우)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갈등론의 경우) 등으로 근거까지 모두 들어 잘 설명하였다면 10점을 부과할 수 있음	20점
2	◈ 채점 기준	10점

	제2문 두 번째 질문의 배점은 10점이다.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 따른 설명(5점), 헌법재판소에 따른 설명(5점)으로 나누어 채점기준을 설명함 - [라]의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 또는 롤스의 국가관 중 하나의 견해만을 설명한 경우 2~3점을 부여함 . '인간의 존엄성' 과 '기회균등이나 약자 배려'에 대한 근거 설명 없이 국가의 노력만을 설명한 경우 2~3점을 부여함 - [라]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평등원칙, (자유권적 및 사회권적) 기본권, 국가의 과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문제 3]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고등학교 경제』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고등학교 경제』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2) 자연환경과 인간'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고등학교 세계지리』교과 '(3)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 영역의 성취기준 [12세지03-05]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분포 특징을 조사하고, 에너지 생산 및 그 수요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국제적 이동 양상을 분석한다.",『고등학교 경제』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 문항 해설 1 (15점)

[가]를 활용하여 [나]의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을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로 설명하고, [다]의 탄소세 도입을 외부 불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문항 해설 2 (25점)**

[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협력과 정부, 기업, 개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마]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나]의 기후 변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기준 - [가]를 통해 [나]의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를 외부 불경제의 시장 실패 상황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비용(사적비용 + 외부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를 통해 [다]의 탄소세 도입은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15점
	◈ 채점 기준 - [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협력과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1)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협력하여 탄소누출을 막아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2)를 통해 정부는 공익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3)을 통해 소비자의 다수가 환경 보존을 위한 윤리적 소비 의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가능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4)를 통해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5점

○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문제 1] 1)번 문항

〔가〕는 어린 시절 탱자 가시에 찔린 경험을 통해 날카로운 가시가 오히려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통을 피하고 외면하기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해야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250자)

[문제 1] 2번) 문항

〔다〕에서 서술자는 문과 출신이었던 오빠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불행한 삶을 마쳤

다고 생각하고, 조카 '훈이'를 이과에 보내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는 〔가〕에서처럼 서술자가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라는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조카의 진로를 강요해서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서술자가 시행착오나 실패를 존중하기보다 안정된 삶만을 추구해서이기도 하다. (256자)

[문제 2]

〔가〕의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로 보며,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인 가치나 규범 준수를 강조하지만, 기득권 유지 집단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나〕의 갈등론은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보며, 대립과 갈등을 통한 사회 발전과 변화를 강조하지만,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는 교육 기회 불평등을 설명한다. 사교육 불평등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사교육 불평등에 대하여 〔가〕는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이며, 분배 기준은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하다고 평가하지만, 〔나〕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된 것으로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라〕에서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회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595자)

[문제 3]

〔나〕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이며 〔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상황으로서 공급자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공급하면서 발생한다. 〔다〕는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 또는 고려하는 상황으로 〔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의 협력과 정부, 기업, 개인의 참여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라〕의 관점에 따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자료 1)과 같이 함께 협력하여 일부 국가만의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인한 탄소누출을 억제해야 한다. 정부는 (자료 2)와 같이 공익의 차원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기업은 (자료 3)과 같이 소비자 다수가 환경 보존을 위한 윤리적 소비 의향이 있으므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의 개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등 지속 가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은 (자료 4)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시키는 다양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602자)

2026 단국대 파이널

제 3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 2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0점)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중략)……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콜레라(cholera): 콜레라균이 일으키는 소화 계통의 전염병. 심한 구토와 설사에 따른 증상. 근육의 경련 따위를 일으키며 사망률이 높다.

출처 : 박안수 외, 『고등학교 국어』

[나] 드레퓌스 사건이 시작된 지 삼 년이 흘렀습니다. 양심적인 많은 사람이 그동안 깊은 고통과 불안을 느꼈고, 마침내 드레퓌스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쉐레르 케스트네르* 씨의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 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밝혀 두겠습니다. 상데르 대령이 사망한 후 피카르 중령이 정보 국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던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전보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그가 상관들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다음 부아데프르장군, 그다음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비요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린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는 실은 비요 문서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이며, 지금도 틀림없이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 공스 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아데프르 장군과 비요 장군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테라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카르 중령의 조사는 이런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퓌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 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비요 장군, 부아데프르 장군, 공스 장군이 드레퓌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일 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중략)……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 쉐레르 케스트네르: 드레퓌스 사건 이후 지인에게서 드레퓌스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듣고 그의 재심 운동을 벌인 인물로, 당시 국회 상원 부의장이었다.

출처 :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

[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중략)…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 삼고초려(三顧草廬):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던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함.
* 훈척(勳戚): 나라를 위해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 권귀(權貴):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음. 또는 그런 사람.
* 백구지국(伯舅之國):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
* 변발(辮髮): 몽골인이나 만주인의 풍습으로, 남자의 머리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게 땋아 늘임. 또는 그런 머리.
* 호복(胡服): 만주인의 옷. 오랑캐의 옷차림.
* 상인(喪人):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출처 :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고, [라]를 바탕으로 [마]의 사례를 각각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이념을 인류를 '노예의 길'로 이끄는 악이라고 보았다.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도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제한적 지식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게 오류에 빠지기 쉬운 개인들이 모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마당이 시장이다. 개인들이 각자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오류를 정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은 사회 발전의 필수적, 절대적 요소이며, 시장과 경쟁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부의 계획이

나 정책은 사악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장 바깥의 간섭을 배제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출처 : 『한겨레』, 2019. 10. 19 (출제진 재구성)

[나] 케인스는 현실의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은 대등하지 않고, 그렇게 대등하지 않은 경제 주체들 사이의 자유 경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케인스는 이 점을 이렇게 간명하게 요약했다. "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경우가 흔하다." 즉 간섭이 전혀 없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불공정한 소득 분배' 등 이른바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케인스의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뉴딜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대공황 시기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출처 : 『한겨레』, 2019. 10. 19 (출제진 재구성)

[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구독료는 미국 본사의 매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自國) 내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대 IT 기업은 본사가 위치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은 돈을 벌고도 정작 그 국가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세는 이러한 세금 체계를 수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거대 IT 기업들이 위치하지 않은 국가도 자국 내에서 매출을 일으킨 IT 기업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대 IT 기업은 없지만,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공정 과세'를 강조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 기업은 이익의 23.2%를 세금으로 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은 9.5%만을 냈다. 이들 정부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정부가 개입하여 세금으로 규제하면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글로벌 IT 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한 국가들의 반발도 심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들은 디지털세 부과가 자국의 일자

리 창출과 세수(稅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 『동아일보』, 2018. 11. 3. (출제진 재구성)

[라] 정부는 시장 실패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도 정보의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최선의 대안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여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둘째, 유권자들이 정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에 반대하고,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큰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이 경제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럴 경우 정책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정책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관료조직의 문제와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마] (자료 1)

정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노선 개발에 15조 958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통된 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노선 개발의 근거가 된 예상 통행량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료 2)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배기가스 제로법」을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의무적으로 무공해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도록 규제하였다. 이에 G사는 상용 전기 자동차를 양산하였고 소비자의 호응도 좋았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은 정부에 끈질기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배기가스 제로법」은 2003년 폐기되었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문제 3 [가]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의 자료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아 각각 제시하고, [다]를 활용하여 향후 주 4일제 도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의 역할을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월화수목일일일' 주 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 4일제 근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표준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을 발의하며 주 4일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 등에선 직장 만족도 향상이나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내세워 찬성하지만, 기업계 등에선 생산성 저하나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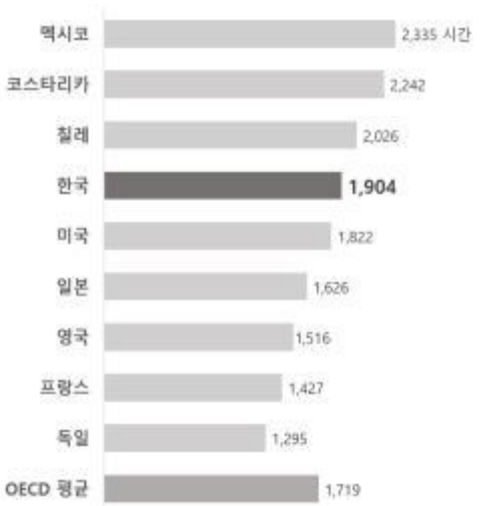
출처: 『조선일보』, 2024. 4. 15. (출제진 재구성)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구직자들이 쏠리는 직업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기관과 금융, 병원 근로자 업무 부담이 추가로 가중되고, 이용자와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 교수는 "국내서 주 4일제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보기술(IT), 바이오, 소프트웨어, 빅테크와 같은 일부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조선비즈』, 2024.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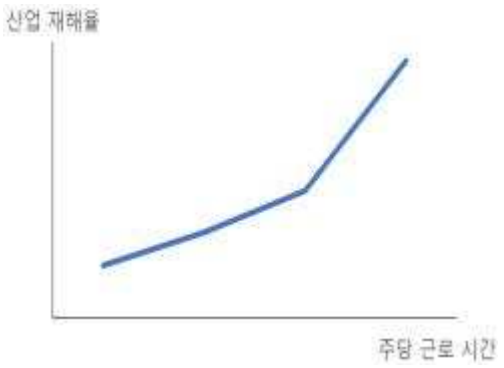
[나] (자료 1)

<2022년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 시간>



출처 :『연합뉴스』, 2024. 3. 3.

<주당 근로 시간과 산업 재해율*의 관계>



* 산업 재해율: 전체 근로자 중 산업 재해(사망자, 부상자, 업무상 질병 요양자 등)를 당한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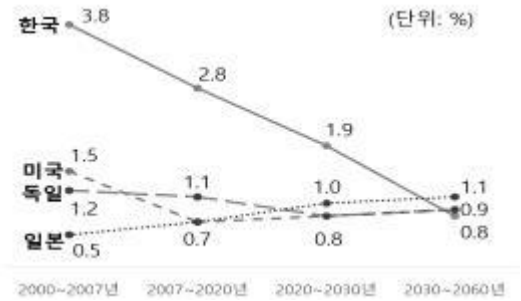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 2011. 11. 21.
(출제진 재구성)

(자료 2)

기술 진보가 중요하지만, 노동 투입량은 여전히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이민 정책으로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인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출처: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국가별 1인당 잠재 성장률* 변화 추이>



* 잠재 성장률: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함.

출처:『세계일보』, 2024. 1. 15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 전망>

* 생산 연령 인구: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수.

출처:『매일경제』, 2023. 12. 14

(자료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대다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지금은 대다수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직업도 다양하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확산하면서 기존 사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생활 방식, 의식 구조,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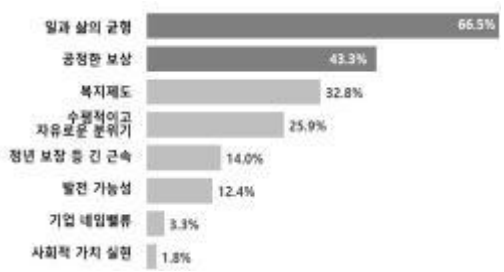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회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뜻함.

출처:『디지틀조선일보』, 2018. 3. 28

<MZ 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출처:『이코노미스트』, 2022. 5. 21.

(자료 4)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적 자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의 차이로 나타난다.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의 소유와 행사의 차이로 나타난다.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사회적 위신, 명예, 교육 수준, 지식 소유 등 사회·문화적 생활의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산업별 주 4일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산업 구분	비율
교육	44%
제조업	41%
여행/운송	37%
소매유통	28%
금융	26%
정보기술(IT)/통신	17%

출처: 『ClickUp』, 2022.
(출제진 재구성)

<기업 규모별 유연 근무제* 시행 비율>

기업 규모 구분	유연 근무제 시행 비율
직원 수 300명 미만	15.8%
직원 수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22.3%
직원 수 1,000명 이상	30.7%

* 유연 근무제: 통상의 근무 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임.

출처: 『파이낸셜투데이』, 2017. 3. 9.
(출제진 재구성)

[다]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를 기업가라고 하며,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총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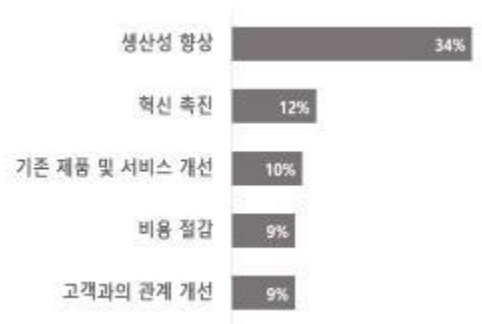
출처: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스마트 공장* 도입 성과>

*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4. 6. 24

<AI 도입 생산성 성과>



출처: 『정보통신신문』, 2024. 9. 25

사회 갈등은 구성원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회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략)……

한편 국가는 사회적 분열이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모습>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경제 사회 주체 간 협력을 협의하는 기구를 의미함.

출처: 『국민일보』, 2024. 3. 10.

노동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노동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직장인 8명의 가짜 노동* 시간>

1월 11일~17일 직장인 8명의 가짜 노동 시간

이름	직업	가짜 노동 시간(분)	전체 근무 시간(분)
김○○	초등교사	740	2,850
이○○	공무원	770	2,410
김□□	제조업계	150	2,495
양○○	금융업계	440	2,940
이△△	공무원	1,665	2,685
강○○	사회복지사	710	1,950
김△△	공공기관	1,140	2,550
임○○	제약업계	730	2,720
합계		**6,345**	**20,600**

* 가짜 노동: 실제 성과와 상관없는 일, 보여주기식의 일, 단지 바빠 보이기 위한 일들을 의미함.

출처: 『한국일보』, 2024. 2. 27

제 3 강 2025학년도 기출문제2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국어』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및『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글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는『고등학교 국어』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 성취기준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고등학교 문학』교과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부분에 나오는「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프랑스의 존경받는 문학인이 군 당국의 잘못된 사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 부분에 나오는「나는 고발한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부분에 나오는「허생전」에서 발췌한 글이다.

2. 문항 해설

1)번 문항

○ 문항 해설 (10점)

- 제시된 지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사에서 갈릴레이는 당시 권력층이 지지하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해 신의 권위에 도전한 불온한 이단자로 낙인찍혀 목숨까지 위협받았다. 하지만 영국 의사 존 스노의 예는 다른 시사점을 준다. 당시 과학자들은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를 지지했지만, 존 스노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상수도(물)를 통한 전염 경로를 밝혀내 콜레라 예방에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이단적인 발상과 이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는 에밀 졸라(1840-1902)가 1898년 1월 13일『로르르』신문에 간첩 누명을 쓴 유대인 군인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가 무죄임을 폭로한 편지 형식의 글이다. 저자는 1894년 드레퓌스가 적국인 독일에 기밀문서를 넘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유배되었는데, 1896년 피카르 중령이 에스테라지 소령이 진범임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고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번 문항

○ 문항 해설 (20점)

-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다. 제시문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를 등용할 방법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대장'은 이를 행하는 것은 모두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이 대장'이 기존 통념과 권위에 맞서는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번 문항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서 기존 통념과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에서 저자는 군 당국이 드레퓌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것을 비판하고,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10점
2)번 문항	◈ 채점 기준 -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허생'을 통해 당대 집권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다. 제시문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를 등용할 방법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대장'은 이를 행하는 것은 모두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이 대장'이 기존 통념과 권위에 맞서는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2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2]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

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5) 시장 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10]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와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와 관련된다. 이 제시문들은 또한『고등학교 경제』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와 성취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 [마]는『고등학교 경제』교과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와 성취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와 관련된다.

2. 문항 해설

○ 문항 해설 1(20점)

[가]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루며, [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에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다룬다. [다]는 국내외에서 부과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다룬다. [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한다.

○ 문항 해설 2(10점)

[라]는 정부의 개입, 정부 실패에 대한 정의와 정부 실패의 원인을 다룬다. [마]의 (자료 1)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 오차로 인한 정부 실패 사례를 다룬다. [마]의 (자료 2)는 자동차와 석유 회사들의 압력에 의한 정부 실패 사례를 다룬다. [라]를 바탕으로 [마]의 사례를 각각 설명한다.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 채점 기준 아래 내용을 근거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부여. - [가]의 하이에크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나]의 케인스 수정자본주의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정부의 개입이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나]의 관점에서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평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20점

2	아래 내용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부여. - [마](자료 1)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부 정보의 불완전성,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잘못된 예측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마](자료 2)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으로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 효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10점

[문제 3]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및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고등학교 경제』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와『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와 관련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고등학교 경제』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와『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의 각각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 문항 해설 1 (25점)

[나]에서 적절한 근거를 선택적으로 찾아 [가]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문항 해설 2 (15점)

[다]에 제시된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향후 주 4일제 도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 각각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 채점 기준 - (자료 1)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많고, 주당 근로 시간이 많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근로 시간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2)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주 4일제 도입으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3)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4)에서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 4일제 도입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종합적으로 위의 자료들을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활용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5점
2	◈ 채점 기준 - 정부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 4일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기업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스마트 공장, AI 등과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후 주 4일제 도입으로 줄어들 노동 투입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가짜 노동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15점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1)번 문항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존 스노를 예로 들어 사회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을 무시한다면 과학의 발전은 늦춰질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군 당국이 드레퓌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고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45자)

[문제 1] 2)번 문항

〔다〕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의 어진 인재를 등용할 계책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대장'은 '허생'의 계

책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는 〔가〕에서처럼 '이 대장'이 새로운 주장을 할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나〕와 달리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267자)

[문제 2]

시장 실패에 대해 〔가〕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관점을 설명한다. 〔나〕는 적극적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 수정자본주의 관점을 보여준다. 〔다〕는 디지털세 논란을 다루는데, 〔가〕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나〕 관점에서 디지털세를 통해 정부가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 (자료 1)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에 대한 예측 오류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다루고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정부도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 실패에 봉착할 수 있다. (자료 2)는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의 압력에 의해 좌절된 「배기가스 제로법」을 다룬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실패는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613자)

[문제 3]

주 4일제 도입은 〔나〕의 (자료 1, 3)을 근거로 찬성할 수 있다. (자료 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이 많고, 근로 시간이 많으면 산업 재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자료 3)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되고 있어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주 4일제 도입은 (자료 2, 4)를 근거로 반대할 수 있다. (자료 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과 생산 연령 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 4일제로 노동 투입량까지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자료 4)에 따르면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주 4일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주 4일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은 스마트 공장,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는 주어진 업무 시간에 가짜 노동을 최대한 줄여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600자)

2026 단국대 파이널

제 4 강 202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0점)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서야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차별을 방지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고작해야 국민 의식 개혁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꽤 손쉬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단돈 십만 원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큰돈이 들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현재의 우리 법 제도에서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이 활성화되기는 몹시 어렵다.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의 차별 철폐 관련 소송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차별받는 이웃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돈'이며,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의 진정한 보루(堡壘)*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저력(底力)*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

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은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胎動)*할 것이다.

* 보루: 지켜야 할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저력: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
* 태동: 어떤 일이 생기려는 기운이 싹틈.

출처: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

[나] 무릇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함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시책입니다. 엎드려 관찰해 보건대 우리 해동(海東)*은 삼한(三韓)이 통일하기 이전에는 그 풍속이 소박하여 예악(禮樂)*이 먼저 발전하였고, 나라 풍속이 검소하여 사치를 몰랐습니다.

……(중략)……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께서는 덕은 삼왕(三王)*보다 뛰어나시고 도는 이제(二帝)*와 비등하시며, 그 공은 유한(劉漢)*보다 높고 제도는 당나라를 이었으니, 모든 나라가 이곳을 향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편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곡식으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이 뒤에 누구를 기다려 바르게 하겠습니까.

……(중략)……

간절히 설명하옵건대 지금 과거의 환법(圜法)*의 공을 본받으면 실익이 그 배가 될 것이고, 혹 결단코 행하면 몇 가지 이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히 대략 진술하옵니다.

무릇 쌀을 화폐로 사용한다면 멀고 가까운 곳을 따라 교역할 때에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의 사용은 수량(銖兩)*의 가벼운 것이지만 헛되이 소모하는 쪽은 천균(千均)*처럼 무거울 것입니다. 곧 수백 리 밖에서 쌀을 운반할 때에 말 한 마리에 겨우 두 섬밖에 실을 수 없을 뿐더러 열흘이란 기간이 걸리므로 여기에 사람과 말의 힘이 이미 절반 이상 소모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가난한 백성들이 소나 말이 없으면 직접 등에 지고 가다가 추위와 더위에 병들어 길에 쓰러지는데 그 고통과 불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돈을 사용하여 사람이 지거나 말에 싣는 고통을 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첫째 이점입니다.

……(중략)……

새 창고에 가득 찼던 작년의 공포(貢布)*가 몇 번 습기에 차서 상한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가리면 백에 열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화재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나자 백 무더기가 함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돈을 사용한다면 저장하는 데도 견고하여 특별히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이 그 넷째 이점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영명하신 지혜로 혼자 결단하시어 과감히 실행하시면 그것은 특별히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세 백성의 복이 될 것입니다. 혹 조정에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또 신의 건의를 조정의 공론에 부치어 공경대부(公卿大夫)*들에게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간절히 저 마원(馬援)*을 본받아 전하 앞에서 열세 가지 문제를 풀어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만 감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 해동: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 예악: 예법과 음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삼왕: 중국 고대의 세 임금.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을 이른다.
* 이제: 중국 고대의 요 임금과 순 임금을 이르는 말.
* 유한: 중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방(劉邦)이 건국한 전한(前漢).
* 환법: 화폐 제도.
* 수량: ① 얼마 안 나가는 무게. ② 근소하거나 경미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천균: 매우 무거운 무게 또는 그런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균'은 예전에 쓰던 무게의 단위로, 1균은 30근이다.
* 공포: 공노비가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 공경대부: 삼공과 구경, 대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있던 것으로 나중에는 '벼슬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 마원: 중국 후한 때의 무장·정치가(기원전 14년~기원후 49년). 후한 초기에 화폐 '오수전'의 사용을 건의하였는데, 삼부에서 열세 가지 어려움을 들어 이를 반대하자 광무제 앞에서 직접 해명하였고, 임금은 이에 따라 화폐법을 시행하였다.

출처: 고형진 외, 『고등학교 독서』

[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는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 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不調)*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였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 갔다. 활판(活版)* 윤전기(輪轉機)*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摺紙)*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offset)* 윤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 부조: 건강의 상태가 고르지 못함.
* 활판: 네모 기둥 모양의 금속 윗면에 문자나 기호를 볼록 튀어나오게 새긴 활자로 짜서 만든 인쇄용 판.
* 윤전기: 신문, 잡지 따위와 같이 많은 양을 인쇄할 때 쓰는 인쇄기의 하나.
* 접지: 제본할 때 페이지 순서대로 인쇄된 종이를 접음.
* 오프셋: 평평한 인쇄판으로 하는 평판 인쇄의 하나.

출처: 이숭원 외, 『고등학교 문학』

문제 2 [가]의 현상을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라]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특정 가수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대신 노래를 불러 주는, 이른바 AI 커버(따라 부르기) 영상이 유행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막대한 돈과 시간이 투입됐던 기술이 이제 2~3분 만에 한 곡을 완성하니, 흥미 유발 요소에 제작의 용이성까지 더해져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다. 의외성이 클수록 대중의 감응도 뜨겁다. 머큐리, 임재범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를 석권 중인 비비의 '밤양갱'은 고(故) 김광석, 아이유, 박명수, 오혁, 그리고 만화 캐릭터 보노보노까지 불렀다.

……(중략)……

아이유 AI의 커버곡이 가장 반응이 좋았고, '밤양갱' 인기를 견인한 1등 공신이 됐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망상'도 드는 것이다.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이 부르는 민중가요, 김정은이 부르는 애국가 같은 걸 듣게 된다면….(이미 누군가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 두렵지만 막연했던 그 말이 이토록 명확하고 가깝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던가. AI 커버의 확산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AI가 소설을 쓰는 거대하고 단편적인 이벤트와 다르다. 동시다발적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 훨씬 크고 충격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출처: 『문화일보』, 2024. 3. 13.

[나] 대중 매체는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렸지만 대중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영화를 보고 음악을 즐기는 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특정 사회나 계층을 넘어 대중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중략)……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대중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되면서 더욱 발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대중문화의 보급과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유행의 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한편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휴식과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고급문화라는 이름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소비되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문화 보급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한다.

출처: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 · 문화』

[다]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략)……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는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 감식안: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등을 구별하여 알아내는 눈.
* 미감: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또는 아름다운 느낌.

출처: 민현식 외, 『고등학교 국어』

[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녀 출연자들이 다양한 인물들을 흉내내는 '성대모사'가 유행하고 있으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누구나 모방하는 기쁨을 느낀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기 있는 인물을 흉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창작과 모방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R.W.에머슨은 "모방은 자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방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흉내냄의 꼴불견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중국의 절세미인 서시(西施)에 대한 이야기도 이를 반영한다. 베낀 사람을 '슬갑도적(膝甲盜賊)'*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남의 작품을 베끼거나 자기 것처럼 발표하는 '표절'은

범죄로 간주되며, 교육부 감사에서 교수들의 논문 표절이 적발되거나 연구원의 보고서 표절 사례 등이 이에 대한 경고를 보여 준다.

이처럼 모방과 표절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표절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진다.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모방은 웃음을 주기 위한 오락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모방이 아닌 독창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 슬갑도적: 남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훔쳐다가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

출처:『경향신문』, 2000. 8. 28.(출제진 재구성)

문제 3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의 문제를 설명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와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출처: 이진석 외,『고등학교 통합사회』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 정보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 (중략) ……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래의 양 당사자 중 판매자만 품질을 알고 있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품질의 차량이 존재하는데,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차의 품질에 비례하여 가격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품질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는 양질의 중고차는 판매되지 않고 낮은 품질의 중고차만 판매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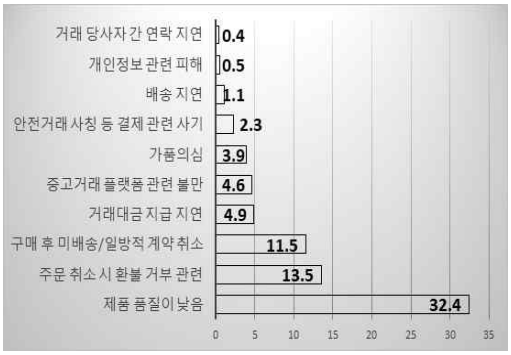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민영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전에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보험 가입 후에는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출처: 허수미 외,『고등학교 경제』

[나]

<중고거래 시 이용자 피해 유형>

(단위: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2(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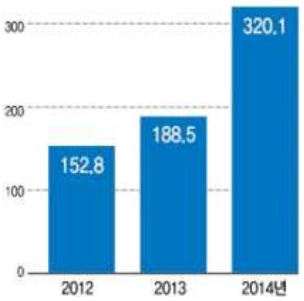
<중고차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건수	비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상이	성능·상태 불량	572	72.1
	주행 거리 상이	25	3.2
	침수 차량	24	3.0
	기타	11	1.4
	소계	632	79.7
세금 등 기타 비용 미정산		34	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	2.1
기타		110	13.9
합계		893	100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9

[다]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환자 적발 금액 통계> (단위: 억 원)



출처:『연합뉴스』, 2015. 2. 23.

<경상환자* 치료비 및 한방* 치료비 비중> (단위: 조 원, %)

정부는 또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방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상급 병실 입원료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경상환자 치료비 가운데 한방의 비중은 2016년 45.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3.3%로 수직 상승했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도 2016년 1조 9,30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092억 원으로 50% 급증했다. 금융위 측은 "지난 5년간 경상환자와 한방 치료비의 가파른 증가세가 전체 보험금 지출 급증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 경상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의미함.
* 한방: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 양방: 해부학에 근거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 진료수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책정된 가격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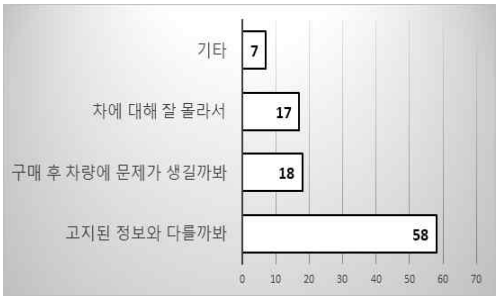
출처:『한국경제』, 2021. 9. 30.

[라]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이다. 국가 경제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가계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 활동은 수입을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출처: 허수미 외,『고등학교 경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 우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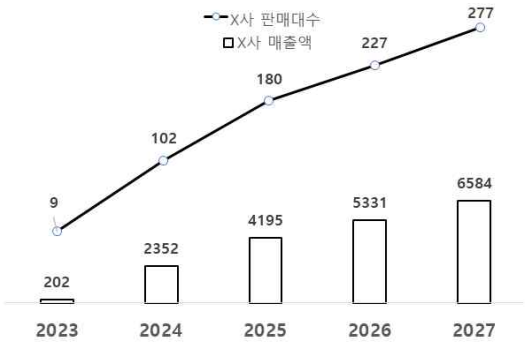
(단위: %)



출처:『헤럴드경제』, 2022. 4. 6.
(출제진 재구성)

<국내 브랜드 인증중고차* 사업 전망>

(단위: 천 대/십억 원)



* 인증중고차: 정해진 인증 절차를 통해 연식과 주행 거리 등의 품질을 보증하고, 성능 점검과 수리를 통해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판매하는 중고차를 의미함.

출처:『뉴스웨이 , 2023. 10. 17.
(출제진 재구성)

[마]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므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편익과 비용이 변화하면 선택도 달라진다. 이때 편익이나 비용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요인을 경제적 유인이라고 한다.

……(중략)……

시장 경제에서 모든 경제 주체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즉 경제적 유인은 경제 주체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는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출처: 유종열 외,『고등학교 경제』

<주요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보험사	상품	혜택
□□생명	□□보험	• 가입자가 걷기 등 목표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 10,000포인트 달성 시 보험료 10% 할인
○○생명	○○보험	• 일 평균 10,000보 이상 걸은 경우 월 보험료 50% 환급
☆☆화재	☆☆보험	• 가입자가 걷기, 달리기 등 목표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 제휴 쇼핑몰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기프티콘 구매 가능
△△보험	△△보험	• 혈당, 걷기 등 건강 미션 달성 시 포인트 제공 • 앱을 통해 1포인트당 1원으로 건강관리용품, 식품 등 구매 가능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보험 가입자(보험소비자)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건강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함.

출처: 중앙일보 , 2018. 6. 8.(출제진 재구성)

<보험회사 혜택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의지에 대한 보험 가입자 응답률> (단위: %)

구분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규칙적 운동하기	20.0	31.5	34.2	14.3
식생활 개선	18.7	30.4	35.6	15.3
금연	33.2	37.2	20.6	9.0
금주 혹은 절주	28.8	35.8	24.3	11.1

출처: 최장훈 외, 2019

제 4 강 2025학년도 모의논술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1) 요약하고 2)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국어』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와『고등학교 독서』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및『고등학교 문학』교과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와『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설득을 위한 읽기와 쓰기' 부분에 나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화폐 사용을 건의하는 고려 시대의 상소문이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 '독서의 분야' 부분에 나오는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의 사례 중 「돈을 주조하기를 청함」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가난한 노동자 가족의 삶을 다룬 1970년대의 소설이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문학』교과서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부분에 나오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발췌한 글이다.

2.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0점)

제시된 지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각종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법과 제도가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 국가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사회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나]는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1055~1101)이 물물 교환의 폐단을 지적하고 화폐 사용의 필요성을 건의한 상소문이다. 곡식을 이용한 물물 교환은 운반이 불편하고 보관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화폐의 제정은 이러한 폐단을 막고 백성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는 백성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이 글은 현행 제도에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필요한 법이 있다면 나중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20점)**

[다]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문항이다.

[다]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의 현실을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을 통해 보여 주는 소설이다. 제시문에서는 인쇄 공장에 다니는 형제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 준다.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노동시간, 노동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등 노동자의 문제 상황이 드러난다. 소설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2]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비판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3) 문화와 일상생활' 성취기준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와『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 '(4) 과학과 윤리' 성취기준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및 '(5) 문화와 윤리' 성취기준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는 최근 유행하는 AI 커버곡이라는 문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AI 커버곡은 AI 기술로 인해 새

롭게 생겨난 문화로,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소비되고 공유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AI 커버곡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유행을 불러왔다.

[나]는 대중 매체로 인해 형성 및 확산된 대중문화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글이다. 대중문화는 특정 계층만 향유하던 문화를 대중이 즐기고 소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는 예술의 독창적 가치와 미감(美感)에 대한 글이다. 예술은 창작의 과정과 그 결과물 자체로서 미적 가치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창작자의 성찰과 독창성을 드러내므로 기존의 작품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가 새로운 기술로 인해 형성된 문화라는 점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했으므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가 독창성이 부족한 기계적인 결과물의 형태라는 점을 비판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문항 해설 2 (10점)

[라]는 창작과 모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방과 표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R.W.에머슨의 "모방은 자살"이라는 표현, 중국 절세미인 서시에 대한 이야기, 슬갑도적(膝甲盜賊)이라는 표현을 그 예로 들면서 모방과 표절이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표절이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예술 분야의 독창성을 다시 강조한다.

◈ 채점 기준

- [라]를 활용하여 [가]의 현상 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 침해와 같은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3]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고등학교 언어와 매체』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5) 시장 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와『고등학교 경제』교과 '(2) 시장과 경제 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4] "시장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5) 시장 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1] "자본

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고등학교 경제』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 기준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및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의 관점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가]에 설명된 시장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와 [다]의 문제를 각각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에 제시된 자료에서 시장실패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나]에 제시된 자료에서 소비자들이 낮은 품질, 낮은 성능의 중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많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가]에서 설명된 역선택의 대표적인 현상임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다]에 제시된 자료에서 환자의 과잉 진료, 허위 의료비 청구 사례가 많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가]에서 설명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현상임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8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0점)

[라],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 [다]의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라]에 제시된 인증중고차 매출 증가 자료를 활용해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역할을 설명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때 역선택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마]에 제시된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소비자의 생활 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자료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유인이 제공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대학발표 예시 답안

[문제 1] 1번) 문항

〔가〕는 차별 금지 소송 증가가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가가 차별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곡식을 이용한 물물 교환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화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한다. 화폐를 사용한다면 운반과 보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강조한다. (243자)

[문제 1] 2번) 문항

제시문 〔다〕에서는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노동시간, 노동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등 노동자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고가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에서 제시된 것처럼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나〕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의 부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249자)

[문제 2]

〔가〕는 AI 커버곡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AI 커버곡은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손쉽게 소비되고 공유되는 특징으로 인해, 대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유행하게 되었다. 〔나〕는 대중 매체로 인해 형성 및 확산된 대중문화의 특성에 관한 글로, AI 커버곡 역시 새롭게 발전된 AI 기술로 인해 형성되고 보급되었다는 특성을 가진다. AI 커버곡은 새로운 형태의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다〕는 예술의 독창적 가치를 강조한 글로, 기존의 동일한 음원에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덮어씌운 AI 커버곡은 창작자의 고뇌와 성찰이 드러나지 않은 기계적인 결과물이므로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는 모방과 표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 커버곡은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문이나 예술 분야의 표절은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I 커버곡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592자)

[문제 3]

〔가〕는 상품의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문제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는 역선택의 사례이다. 판매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가볍게 다친 보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진료받거나, 심지어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한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나〕의 역선택 문제는 〔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기업이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품질을 점검한 인증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더 양질의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역선택 문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도 증가할 수 있다. 〔다〕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 문제는 〔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제공하면 보험 가입자가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 더 건강하게 생활하려 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592자)

2026 단국대 파이널

제 5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1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하며, 종교의 신임을 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것일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비참한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사라졌을 것이다.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마녀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는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었고, 파시스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식의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출처 : 이삼형 외, 『고등학교 독서』

[나] 영국에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칼레의 사자를 접한 영

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이때 왕의 측근 월테 머네이 경이 왕 앞에 나섰다. 측근까지 나서서 자비를 구하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에드워드 3세는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섯 명만은 예외이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며, 목에는 교수형에 쓸 밧줄을 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겠지."

이 소식은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결국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여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다. 패자의 운명은 이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외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해서 희생합시다. 우리는 싸움에 져서 항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얼과 넋마저 내어 준 것은 아니오.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오.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외스타슈는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그렇게 여섯 명이 채워졌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송별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시장 광장에서 에드워드의 진지를 향해 나아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감에 싸여 통곡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

[다] 여론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제멋대로 과장해서 보도했다. 『르 프티 주르날』 지는 정치적 편향을 보이지 않는 신문이었고 대체로 그런 이유 때문에 300만의 독자를 가진 신문이었지만 이렇게 선언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드레퓌스는 국방부가 신임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 동료들을 자신의 묵인 하에 놓인 덫에 걸리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을는지도 모른다."

『레코 드 파리』 같은 보수적인 신문은 아무런 인용 없이 드레퓌스가 병력 동원의 규모, 시간,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적에게 팔아넘겼다고 보도했다. "병력 동원 시간표를 다시 작성하는 데만도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최근에 일어났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반역 행위의 책임까지 드레퓌스에게 돌려졌다. 드

레퓌스는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도 어떤 신문은 그가 독일 귀족들과 함께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것이 목격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며 그가 묵은 것으로 '알려진' 호텔의 이름과 객실의 번호까지 밝혔다.

주요 일간지인『르 탕』지와『르 마탱』지는 드레퓌스가 어떤 연애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드레퓌스는 니스에 사는 귀족 출신의 이탈리아 미녀를 애인으로 갖고 있었다. 그를 유혹해서 반역 행위를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여자였다고 이 두 신문은 공언했다.

"드레퓌스는 프랑스 국민을 파멸시키고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려고 획책해 온 국제적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라고 가톨릭계 신문인『라 크루아』지는 썼다.『라 리브르 파롤』,『라 코카르드』,『라 파트리』등의 신문은 모두 입을 모아 드레퓌스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참모본부는 드레퓌스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뒤따를 것인지 명백히 내다볼 수 있었다. 메르시에는 사직하게 될 것이며 아마 내각 자체도 무너지게 될 것이었다.

출처 : 니홀라스 할라스,『나는 고발한다』

문제 2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능력과 업적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본다. 더욱이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은 인종, 지역, 가정환경 등 외적 조건에 따라 교육과 훈련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는 견해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며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개인의 성취 동기와 창의성을 저하시켜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가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출처 : 박병기 외,『고등학교 통합사회』(출제진 재구성)

[나] 미국의 흑인 실업률이 두 달 연속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지난 6월 고용 통계에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조기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노동자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탈 현상은 한결같지 않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흑인 실업자 수는 5~6월 26만 7,000명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30만 명 증가한 실업자 수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6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흑인 실업률은 6%로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백인 실업률은 3.1%로 낮아져 흑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흑인 노동자들은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한 국면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 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다. 고용자 수가 최근 감소한 것은 노동시장 전체에 하나의 위험 초기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중략)……

흑인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참여율은 그동안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올해는 한 때 15년 만의 높은 수준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고용자 수는 3개월 기준으로 3% 감소했다.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노동시장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중시되는 흑인과 백인의 실업 격차도 확대로 돌아섰다.

출처 : 『초이스 경제』, 2023. 7. 11.

최근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미국 흑인이 종사하고 있는 4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맥킨지 파트너 겸 보고서 공동 저자인 제이슨 라이트는 “현대의 경제에 존재하는 현대화, 자동화, 글로벌 전환에 미국 흑인들은 백인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전체 노동력에서 22%의 일자리가 AI 및 자동화로 인하여 ‘파괴’되어 없어지거나 저임금으로 대체될 것이지만, 미국 흑인 노동력의 사례는 10%포인트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산은 아무런 대책이나 중재가 없다면 2030년까지 450만 개의 흑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중략)……

AI 및 자동화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 인종적 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백인 가구와 흑인 가구 사이의 재산 차이는 1992년 이후 54,000달러 증가했다. 백인 미국인들은 흑인 미국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학생 부채를 덜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고용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AI 타임스』, 2019. 10. 9.(출제진 재구성)

[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우대하는 제도나 정책이 도리어 상대편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자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실제 차별을 받았던 것인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손상되지는 않는지, 노력과 성취에 따른 업적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역차별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이에 영향을 받은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 또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며,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보상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고 현재 보상하는 사람들도 과거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손상할 수 있고, 역차별로 인한 다수 집단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출제진 재구성)

[라] 19일(현지 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근 대학 견학을 추진하는 미국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 지역의 7개 초등학교가 지난 16일 견학 참가 학생을 흑인으로만 제한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백인 학생의 학부모는 이중 잣대에 따른 인종차별이라며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20일 2차 대학 방문 때에는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대학 견학을 기획한 이는 사우스벤드 지역 학교 흑인 학부모·학생 자치 연합의 책임자로 선임된 흑인 데이비드 모스 박사다. 모스 박사는 흑인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점을 들어 이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한 행보라며 차별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많은 어린 흑인 학생이 흑인 대학생을 본보기로 삼고 대학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일"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중략)……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콜러』는 최근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만을 위한 의도적인 백인 역차별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데일리 콜러』를 보면,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 베네시아 중학교의 한 흑인 여성 교사는 수업 시간에 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미국의 민권 운동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고 나서 인종 문제와 관련한 설문지를 나눠 줬다. 같은 달 일리노이 주 시카고 외곽의 오크 파크 리버 포리스트 고교에서도 백인 학생을 배제한 채 오로지 흑인 학생을 위한 '흑인의 삶은 소중하다'는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5. 4. 20.

문제 3 [가], [나], [다]를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경기 침체	→ · 국·공채 매입 · 지급 준비율* 인하 · 기준 금리* 인하	→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총수요* 증가	→ 경기 부양
경기 과열	→ · 국·공채 매각 · 지급 준비율* 인상 · 기준 금리* 인상	→ ·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총수요* 감소	→ 물가 안정

* 지급 준비율 : 시중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이 증가하여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이 감소하여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 기준 금리 :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이다.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 금리는 시중의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총수요 :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합한 것이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출제진 재구성)

<한국은행 기준 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출처 : 한국은행, 2023

변경 일자		기준 금리
2019년	07월 18일	1.50
2019년	10월 16일	1.25
2020년	03월 17일	0.75
2020년	05월 28일	0.50
2021년	08월 26일	0.75
2021년	11월 25일	1.00
2022년	01월 14일	1.25
2022년	04월 14일	1.50
2022년	05월 26일	1.75
2022년	07월 13일	2.25
2022년	08월 25일	2.50
2022년	10월 12일	3.00
2022년	11월 24일	3.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0.75%→1%)에 이은 연속 금리 인상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다만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1년 10개월 만에 기준 금리는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전 수준(연 1.25%)으로 복귀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1.25%→0.75%) 대폭 인하했고, 이어 2020년 5월 추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낸 건 치솟는 물가를 억누르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가 오르며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를 웃돈다.

출처 : 『중앙일보』, 2022. 1. 14.(출제진 재구성)

[나] **<코스피 지수* 추이>**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코스피 지수	2,198	2,873	2,978	2,236

* 코스피 지수 :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주식 가격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하고 주식 수를 가중 평균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출처 : 한국거래소, 2023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추이>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수도권	112	136	168	130
지방	95	107	120	107
전국	103	120	142	118

*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 매월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아파트 거래 가격 자료를 토대로 기준 시점인 2017년 11월을 지수 100으로 하고 해당 연월의 가격 변화를 상대가격으로 표시한 지수이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3

[다]

<신용 거래 융자 잔고* 추이> (단위 : 백만 원)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신용 거래 융자 잔고	9,213,276	19,221,357	23,089,636	16,518,648

* 신용 거래 융자 잔고 :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금융투자협회, 2023

<예금 취급 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추이> (단위 : 조 원)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843	911	982	1,013

* 예금 취급 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 중 갚지 않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출처 : 한국은행, 2023

<가계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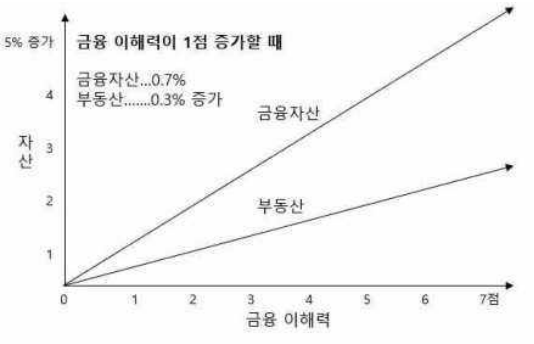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차주*수 (십만 명)		194	196	199	198
대출 잔액 (조 원)		1,622	1,753	1,869	1,861
차주당 대출 잔액 (십만 원)		837	893	940	939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70% 이상	차주수 (십만 명)	26	27	28	30
	비율 (%)	13.5	13.5	14.2	15.3

* 차주 :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 기관 등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 정도면 최저 생계비만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출처 : 한국은행, 2023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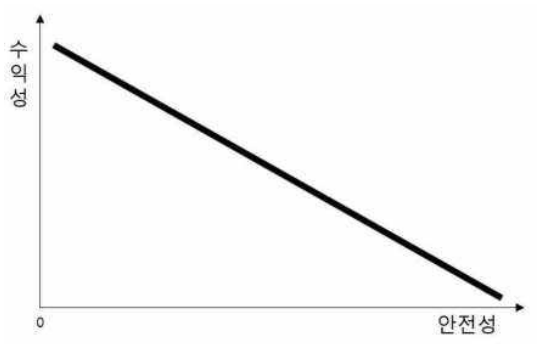
<금융 이해력*과 자산과의 관계>



* 금융 이해력 : 금융 정보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출처 :『조선일보』, 2020. 1. 7.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계>



출처 : 김종호 외,『고등학교 경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국가별 대답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호주	가족	직업	친구	돈	사회
뉴질랜드	가족	직업	친구	돈	사회
스웨덴	가족	직업	친구	돈/건강	
프랑스	가족	직업	건강	돈	친구
그리스	가족	직업	건강	친구	취미
독일	가족	직업/건강		돈/긍정	
캐나다	가족	직업	돈	친구	사회
싱가포르	가족	직업	사회	돈	친구
이탈리아	가족/직업		돈	건강	친구
네덜란드	가족	돈	건강	친구	직업
벨기에	가족	돈	직업	건강	친구
일본	가족	돈	직업/건강		취미
영국	가족	친구	취미	직업	건강
미국	가족	친구	돈	직업	믿음
스페인	건강	돈	직업	가족	사회
한국	돈	건강	가족	사회/자유	
대만	사회	돈	가족	자유	취미

출처 :『뉴스로드』, 2021. 11. 25.

<2018~2020년 OECD 국가 행복 지수 순위> (단위 : 점, 10점 만점 기준)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핀란드	7.84	19	벨기에	6.83
2	덴마크	7.62	20	프랑스	6.69
3	스위스	7.57	21	스페인	6.49

4	아이슬란드	7.55	22	이탈리아	6.48
5	네덜란드	7.46	23	슬로베니아	6.46
6	노르웨이	7.39	24	슬로바키아	6.33
7	스웨덴	7.36	25	멕시코	6.32
8	룩셈부르크	7.32	26	리투아니아	6.26
9	뉴질랜드	7.28	27	에스토니아	6.19
10	오스트리아	7.27	28	칠레	6.17
11	호주	7.18	29	폴란드	6.17
12	이스라엘	7.16	30	라트비아	6.03
13	독일	7.16	31	콜롬비아	6.01
14	캐나다	7.10	32	헝가리	5.99
15	아일랜드	7.09	33	일본	5.94
16	영국	7.06	34	포르투갈	5.93
17	체코	6.97	35	한국	5.85
18	미국	6.95	36	그리스	5.72

출처 :『중앙일보』, 2021. 5. 19.

프랑스 혁명 당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폭등하여 민심이 나빠지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가격 통제에 나섰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민심도 얻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우윳값이 비싸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없다는 어머니들의 원성에 우유 가격 인하를 명령했다. 강제적인 우유 가격 인하 직후에 우유를 싼 가격에 마실 수 있게 된 다수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생산 비용도 보전하기 어렵게 된 목축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였고, 우유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우유 가격은 오히려 더 폭등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로베스피에르가 내놓은 방안은 사료비 통제였다. 사료업자들 역시 도산하고 말았고, 결국 우유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 통제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그 목적과 다르게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처럼 합리적이지 못한 경제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출처 : 김종호 외,『고등학교 경제』

[마] "작년에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꿨죠. 그래서 그 돈으로 더 주식 투자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주식은 난생처음이라 남들 다 버는 장이었다고 하는 데 그리 많이 벌진 못했습니다." (32세 직장인 A 씨)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 A 씨처럼 주식에 '빚투(빚내서 투자)'한 2030세대가 급증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년들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기준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해 빚투한 청년들은 괜찮을까?

출처 : 『뉴시스』, 2021. 6. 26.

이지환(25, 가명) 씨는 평소 형들에게 "남자는 무조건 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형들의 부추김에 외제 차를 타 보고 싶은 욕구는 더욱 강해졌다. 비싼 차에 대한 욕망은 군대에서 극에 달했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때마다 외제 차를 몰고 거침없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멋있는 차를 타고 여자 친구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겠다고 다짐했다. 주변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고 이런 상상들이 군대 생활을 버티게 해줬다.

2019년 말 23살이 됐을 때 이 씨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당시 카드론을 썼던 이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내려간 상황이었다. 제1 금융권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제2 금융권 캐피털에서 자동차 가격을 뛰어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마침내 이 씨는 차량 금액 4,300만 원 전액을 대출받고 중고 외제 차의 차주가 됐다. 이 씨의 차는 친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고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여자 친구는 항상 차로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의 드라이브 요청도 많았다. 카페나 식당에 갈 때는 일부러 주차장이 큰 곳만 골라 갔다.

1년이 넘자 격월로 고장이 발생했다. 딜러가 20만 km까지 무상 보증 혜택 대상 차량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서비스 센터에 가면 특수 부위 수리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 주로 우측 로커암 커버와 스로틀 바디 문제였다. 1년 새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나왔다. 유류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다. 숨만 쉬어도 차량 유지비 200만 원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 씨는 지금 심정을 두 마디로 표현했다. "빠듯하다." 그리고 "후회한다."

출처 : 『국민일보』, 2021. 12. 25.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집중한 지역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제 강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 안정 연구팀 ○○○ 차장은 이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하며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집값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SBS Biz』, 2023. 7. 11.

제 5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1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독서』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및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6]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마녀사냥을 선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부분에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의 사례로 제시한「우리 안의 마녀사냥」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분야' 부분에서 '다양한 매체 자료 읽기'의 사례로 제시한「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여론의 선동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분야' 부분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나는 고발한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2. 문항 해설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 제시된 지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는 문항이다.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선동'이다.

○ 문항 해설 2 (5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마녀사냥'을 권력이 이용한 선동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글이다. 근대 국가는 일반 민중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마녀사냥은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이와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파시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권력은 때로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나]는 칼레의 시민이 영국에 항복하는 과정에서 외스타슈가 시민을 선동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면모를 보여 주는 글이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칼레에서 지체 높은 여섯 명의 목숨을 요구하자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외스타슈는 당당한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자고 선동한다.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서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 문항 해설 2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반역자로 낙인찍힌 프랑스의 육군 참모부 소속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의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동을 보여 주는 글이다. 프랑스의 언론은 드레퓌스 사건을 제멋대로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반역 행위의 책임까지 드레퓌스에게 돌리기도 하였다. 가톨릭계 신문인『라 크루아』지는 드레퓌스를 프랑스 국민을 파멸시키고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려고 획책해 온 국제적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로 지목하였으며, 여러 신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하였다.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1)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선동'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2)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10점
1-2	1)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2]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나], [다]는『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 '(3) 사회와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4) 인권 보장과 헌법'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와 관련된다.

2. 문항 해설

○ 문항 해설 1 (10점)

- [가]는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므로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 [나]는 미국에서 흑인들의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의 2배 수준이며, 특히 자동화와 AI로 인해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사회의 결과적 불평등을 보여 준다.

○ 문항 해설 2 (20점)

- [다]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역차별 여부에 관하여 설명한 글이다.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그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하여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은 보상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니며 보상하는 사람도 차별의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수자 우대 정책은 약자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다수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 [라]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학 견학을 추진한 사례를 포함하여 백인에 비하여 흑인을 우대하여 백인 역차별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백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흑인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역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 백인 역차별이 문제가 된 사례로 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민권 운동 동영상을 보여 준 일, 오로지 흑인 학생만을 위한 행사를 열었던 일이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가]의 관점에서 [나]의 결과적 불평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10점
2-2	- [다]의 두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 *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3]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고등학교 언어와 매체』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경제』교과 '(3) 국가와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3-04]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고등학교 경제』교과 '(5) 경제생활과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5-01]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및 '(5) 경제생활과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5-02]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와『고등학교 경제』교과 '(5) 경제생활과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5-03] "자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및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 문항 해설 1 (20점)

- [가], [나], [다]를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문항 해설 2 (20점)

- [라]를 활용하여 [마]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 [가]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과열에 따라 과도하게 증가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나]와 [다]는 늘어난 통화량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었고, 많은 사람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였다. 그 결과 최근 가계 대출 잔액은 1,861조 원에 이르렀고, 이자율이 오름에 따라 대출받은 사람의 대출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0점

3-2	- [다]의 원인이 되는 [마]가 금융 이해력이 낮은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하고 부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실패임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라]에 제시된 사항을 이용하여 개인은 금융 이해력을 높여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내에서 투자하여야 하고, 지나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해야 하며, 정부는 시장 질서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1)번 문항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선동이다. 권력은 때로 일부러 위험 세력을 조작해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근대 국가는 일반 민중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위험 세력을 조작했는데, 이것은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파시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202자)

[문제 1] (2)번 문항

〔나〕에서 외스타슈는 영국에 항복하는 과정에서 칼레의 시민에게 당당한 죽음의 희생을 선동하였다.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외스타슈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항복 조건에 맞서 당당한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칼레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자고 선동하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다〕는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동을 보여 주는 글이다. 프랑스의 언론은 드레퓌스 사건을 제멋대로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반역 행위의 책임까지 드레퓌스에게 돌리며 그를 반역자이자 국제적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로 몰아갔다. 이 글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밝히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선동하려고만 하는 언론의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391자)

[문제 2]

〔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능력과 업적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 불공정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다양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나〕에 의하면 흑인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의 2배 수준이며, 자동화와 AI로 인해 흑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가〕의 관점에서 〔나〕는 불평등, 불공정한 현상이다.

〔라〕에서는 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학 견학, 민권 수업, 인권 행사를 진행하였다.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견학, 수업, 행사는 정당하다.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그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하여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하며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견학, 수업, 행사는 부당하다. 보상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고, 보상하는 사람들도 과거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으며, 소수자 우대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다수 집단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600자)

[문제 3]

〔가〕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당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했음을 나타낸다. 〔나〕는 늘어난 통화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에 흘러들어 해당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다〕는 많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했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가계 대출 잔액이 증가하였고, 최근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받은 사람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다〕의 원인이 되는 〔마〕는 금융 이해력이 낮은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하고 부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은 금융 이해력을 높여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하며 무리한 대출과 과소비를 지양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 질서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600자)

2026 단국대 파이널

제 6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 2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결점들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의 자기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한다.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한다.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뻣뻣하다고 욕한다.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또 구두쇠이고 편협하다고 욕한다. ……(중략)……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 보따리를 뒤적거려 보지만, 결국은 앞 보따리나 뒤 보따리나 속에 들어 있는 건 매한가지이다.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것, 그냥 용서해 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출처 : 이숭원 외, 『고등학교 문학』

[나] "나는 한평생 해를 연구해 온 사람이오. 나도 한때는 해에 대해 당신들과 같은 식으로, 그러나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소. 하지만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해를 알려다가 종당엔 이 두 눈만 잃어버리고 말았소. 너무 자주, 오래 해를 쳐다보다가 뜨거운 햇살에 두 눈의 동자가 타 버린 것이오. 그런데 한번 두 눈을 잃자 갑자기 해는 있다는 것조차가 의심스런 것이 되고 말았소이다. 그렇소. 정녕 해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어떤 추상일 뿐이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겉모습은 우리들의 온전치 못한 감각이 그때그때 나름대로 받아들인 일시적이고도 자의적인 느낌일 뿐, 그 본질과는 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오."

"그럼, 사물의 겉모습이란 결국 뭐란 말이오?"

한참 지난 뒤에야 겨우 어렴풋하게나마 그 장님의 말을 알아들은 사내 하나가 그렇게 물었다. 장님은 더욱 단정적으로 대답했다.

"그 이름에 걸쳐 둔 넝마 같은 것이오. 예를 들어봅시다. 해의 빛깔만 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아무런 의심 없이 희다 혹은 붉다 따위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정확하지 못한 두 눈이 멋대로 정한 느낌일 뿐이오. 만약 그을음 낀 수정판과 같은 각막을 가진 짐승이 있다면 태양은 겨울 달처럼 새하얗다고 말할 것이며, 연한 자수정 각막을 통해 보면 핏빛처럼 빨갛게 보일 것이요, 잘 간 에메랄드 같은 각막을 지닌 눈에는 보라색이라고 주장될 것이고, 금강석처럼 깎인 각막을 통해 보면 오색이 영롱할 것이오. 또 모르긴 하되, 어떤 생물에게는 그저 막연한 밝음일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생물에게는 빛이 아니라 열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빛깔은 없는 게 되고, 그것은 장님이 된 이 나에게도 마찬가지오.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해는 빛깔이 없소. 있다면 지난날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받았던 어떤 느낌의 기억이나 말이 가진 추상뿐. 해의 크기나 모양이나 성질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소. 우리는 흔히 해는 얼마만 하고 어떻게 생겼으며 그 성질은 어떠하다는 둥 말을 하지만 기실 그것은 우리들 오관의 주관적인 단정에 지나지 않소. 만약 위대한 이성이 있

어,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우며 때로는 기만적이기도 한 오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모든 존재는 말 특히 이름만이 확실할 뿐인 순수한 추상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오. 나도 실은 시각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소. 그리하여 오관의 감각들마저 이성의 힘으로 봉해 버리자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해는 내게 없어져 버린 거요. 있다면 오직 해란 말이 가진 순수한 추상뿐이오."

출처 : 이문열, 『사람의 아들』

[다] 공정 무역 인증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바나나, 초콜릿, 커피, 설탕, 차 등 개발 도상국의 생산 작물에 적용된다. 공정 무역 인증서는 최저 임금 지급, 구체적인 안전 요건 준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생산자에게만 부여된다. 공정 무역 인증에는 두 가지 혜택이 따른다. 첫째, 생산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받는다. 가령 원래 1파운드당 1.4달러였던 커피의 시장 가격이 추후 그보다 떨어지더라도 커피 생산자는 1.4달러를 보장받는다. 둘째, 생산자들은 시장 가격에 붙는 웃돈인 '소셜 프리미엄'을 받는다. 커피 시장 가격이 1.4달러 이상 오르면 생산자들은 파운드당 20센트를 추가로 받는 식이다. 이 소셜 프리미엄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역 공동체 사업 기금으로 쓰인다.

공정 무역 인증 마크가 처음 등장한 1988년 이후로 공정 무역 상품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공정 무역 인증 상품의 매출이 69억 달러에 육박했다. 타국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웃돈을 얹어 주면서까지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감동적이다. 그런데 일반 커피보다 몇 달러 더 주고 공정 무역 커피를 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첫째, 공정 무역 제품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공정 무역 인증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무역 제품을 사는 것이 농부들에게 더 많은 몫을 되돌려 주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공정 무역 제품을 사는 것보다 최빈국의 비공정 무역 상품을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공정 무역 제품이라는 까닭으로 소비자가 추가로 지급한 돈 가운데 실제로 농부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나머지는 중개인이 갖는다. 세계은행 경제 자문관인 피터 그리피스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추가 금액 가운데 가난한 나라의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1퍼센트 미만이다.

셋째,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공정 무역 인증은 인증 받은 단체가 생산한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절차이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4년에 걸쳐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일하는 공정 무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비공정 무역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더 낮고 노동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 무역이 큰 성과로 내세우는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도 정작 극빈층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쯤 되면 공정 무역 제품을 살 까닭이 없다.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아주 미미한 금액을 보태 줄 따름이다. 차라리 더 저렴한 상품을 사고 그렇게 절약한 돈을 비용 효율성이 높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낫다.

출처 : 고형진 외, 『고등학교 독서』

문제 2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고, [라]의 두 관점에서 각각 [마]를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는 개별 국가나 지역을 넘어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국제 문제라고 한다.

……(중략)……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한 국가가 해결하기 곤란하며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해결 방안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중앙 정부가 없는 국제 사회의 특성상 개별 국가에 대하여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출처 : 서범석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출제진 재구성)

[나] 2020년부터 적용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지우고 이를 이행할 새로운 방안을 담았다. 특히,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협약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

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 도상국의 반감을 줄였다.

출처 : 이경호 외,『고등학교 정치와 법』

[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중동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폭증하면서 유럽 국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왔던 서유럽 4대 주요국(빅4 :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끼리 노골적으로 반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독일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와 상의 없이 지중해에서 불법 이민자 구조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에 자금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 간에 이렇게 날이 잔뜩 선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출처 :『조선일보』, 2023. 9. 27.

[라]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한다. 이러한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해외 원조의 의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억압이나 폭력, 기아나 빈곤과 같은 문제는 국내 정치·사회 제도의 부정의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부정의함이 제거되고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되면 그와 같은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중략)……

세계시민주의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한다.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에 따르면 우리가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원조의 의무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의 고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정창우 외,『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마] 2011년 3월 19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합동으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와 독재자 카다피의 관저를 맹렬히 공습하였다. 리비아에서는 2월 중순부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카다피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살하였다. 국제연합(UN)*은 카다피 정부에 무력 진압과 시민 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카다피 정부는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오히려 시위가 확산하자 시위자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학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위협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연합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결정하였다.

국제연합의 군사 개입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248일 만에 카다피의 독재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리비아 군사 개입은 민간인 학살을 막았다는 점에서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리비아의 향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국제연합(UN) :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우호 관계의 증진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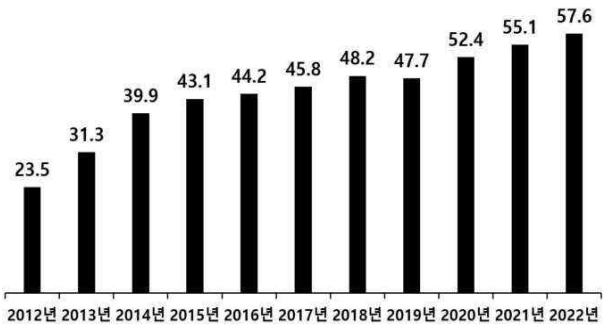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3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SNS(누리소통망) 이용률> (단위 :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성별, 연령대별 SNS 이용률 비교> (단위 : %)

항목	성별		연령							
이용률	남성	여성	만 10세 미만	만 10 ~ 19세	만 20 ~ 29세	만 30 ~ 39세	만 40 ~ 49세	만 50 ~ 59세	만 60 ~ 69세	만 70세 이상
	58.4	56.8	7.7	55.3	93.3	88.0	75.2	58.6	29.0	3.8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나] 인맥은 흔히 성공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사람들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중략)……

이러한 인맥, 혹은 네트워크의 효과를 잘 설명하는 말로 '느슨한 연결(weak ties)의 힘'을 들 수 있다. 친한 친구나 가족 같은 '강한 연결(strong ties)' 관계가 아니라 안면 정도 있는 지인이나 친구의 친구들을 통해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느슨한 연결은 특히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이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서로 네트워크가 겹치니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지금의 인맥과는 다른 더 넓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2022. 10. 1.

뉴 미디어는 기술 및 의사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종합화, 상호 작용성, 비동시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종합화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상호 작용성은 뉴 미디어가 기존의 대중 매체가 지닌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송·수신자 간의 쌍방향성을 증진한 것이다. 비동시화는 과거에는 송신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수신자가 선택하여 볼 수 없었지만, 뉴 미디어는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뉴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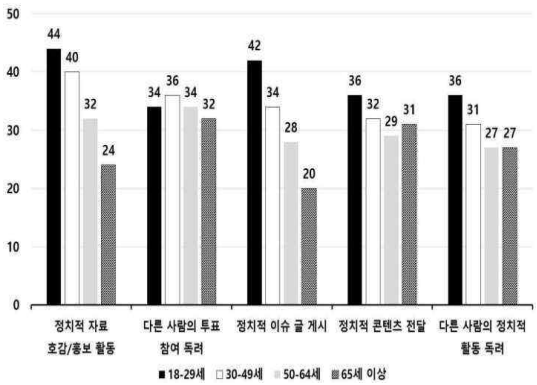
출처 : 정탁준 외,『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SNS를 통한 용인특례시의 시민 의견 수렴>

출처 :『용인특례시 Facebook』, 2023. 2. 24.

<정치 참여 활동에 SNS를 활용하는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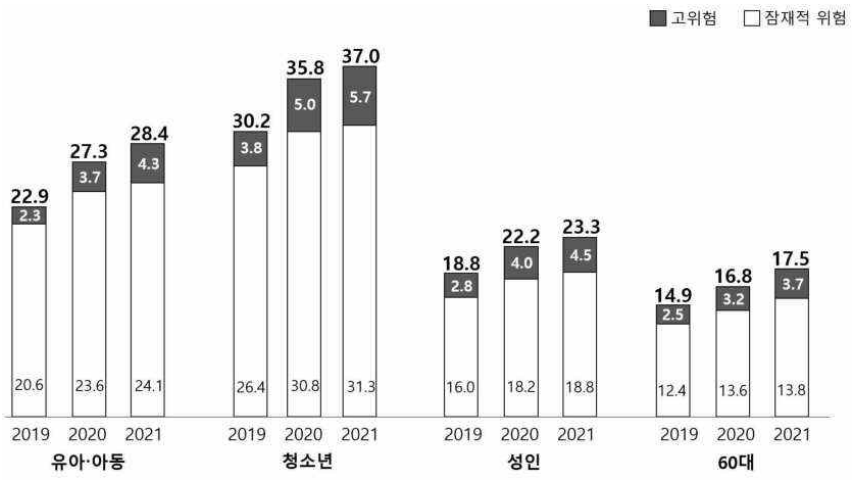


출처 :『지디넷코리아』, 2012. 11. 4.

(출제진 재구성)

[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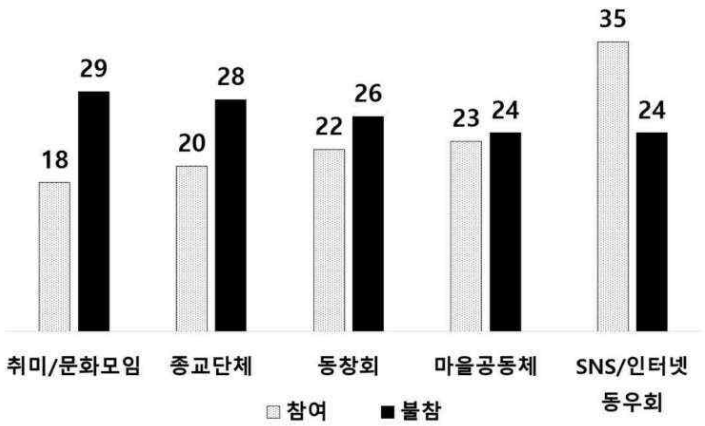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직장인 전모(31) 씨는 한 달 전 가입했던 SNS에서 모두 탈퇴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게시물을 올릴 정도로 열심히 관리했지만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였다. 전 씨는 "언젠가부터 남들이 올리는 휴가, 맛집 탐방 등의 사진을 보면 '내 삶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들고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상 SNS를 접고 나니 홀가분하다."며 "왜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지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SNS를 떠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자기과시성 게시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범람하는 광고, 가짜 뉴스 등에 지쳐 버린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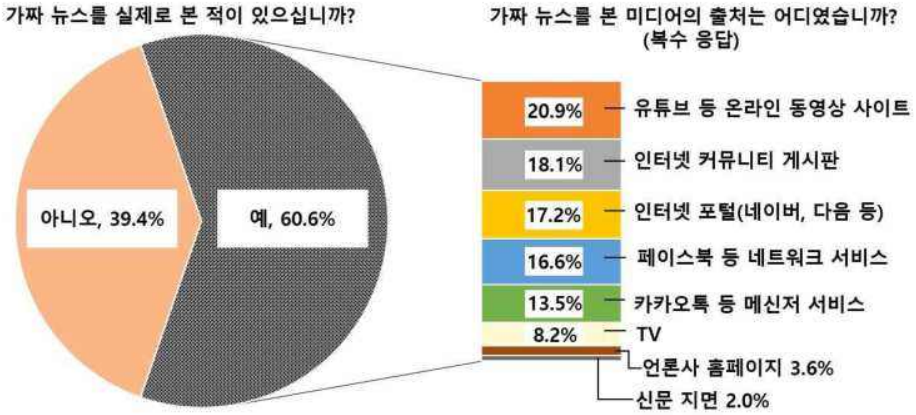
출처 : 『세계일보』, 2018. 8. 17.

<모임 형태별 외로움 체감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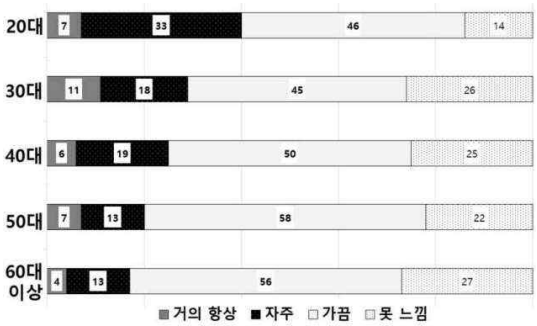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2018

<가짜 뉴스의 주요 출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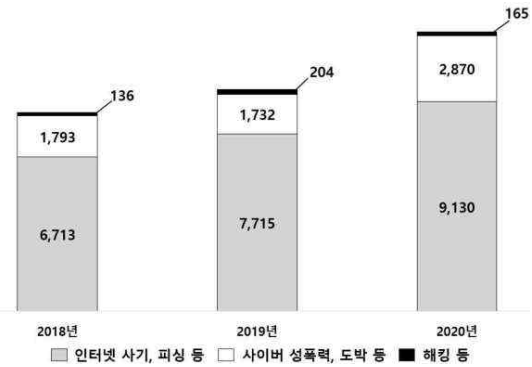
출처 : 『경향신문』, 2018. 11. 23.

<얼마나 자주 외로운가에 대한 국내 조사 결과>
(단위 : %)



출처 :『한국일보』, 2018.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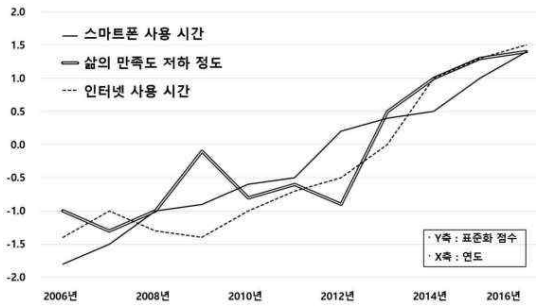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이버 범죄 검거 인원>
(단위 : 명)



출처 :『동아일보』, 2021. 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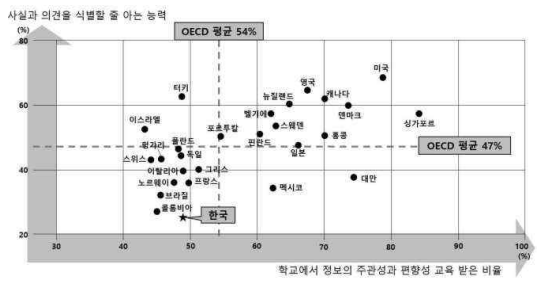
[라]

<스마트폰・인터넷 사용과 미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



출처 :『아시아경제』, 2019. 7. 17.

<OECD 주요국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



출처 :『한겨레』, 2021. 5. 16.

정보 윤리란 정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의',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뜻한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낸 신문에 실린 자신의 흑역사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구글 검색 결과에 링크된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국내에서도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문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63.7%가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7.7%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조선일보』, 2016. 9. 28.

제 6 강 2024학년도 기출문제2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문학』교과 '(1) 문학의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및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본질과 구조' 부분에서 '문학의 유기적 구조'의 사례로 제시한「나와 남」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장님이 아닌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 차이를 보이는 장님이 등장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방법' 부분에서 '감상적 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사람의 아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공정 무역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방법' 부분에서 '비판적 읽기'의 사례로 제시한「윤리적 소비는 효율적인가」에서 발췌한 글이다.

2. 문항 해설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 제시된 지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는 문항이다.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해'이다.

○ 문항 해설 2 (5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설명한 글이다. 인간의 성향은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상반되게 해석한다. 나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 되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남을 보니 서로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시끄러운 세상이 된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행한 일이 부당해 보이더라도 내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남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고 나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남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나]에 등장하는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이 감각 기관을 통한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느낌으로 사물의 겉모습을 이해한다고 본다. 예컨대 감각 기관의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 해가 어떠하다고 말하면서 해를 분명한 실체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장님은 감각 기관에서 자유로워 순수한 추상으로 해를 이해한다.

○ 문항 해설 2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공정 무역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글이다. 공정 무역 인증의 원래 목적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 무역 제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에 수익이 돌아가지는 않고, 공정 무역 제품의 소비자가 추가로 지급한 돈 가운데 실제로 노동자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중개인이 가지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임금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이해'를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10점
1-2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2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2]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고등학교 정치와 법』교과 '(6) 국제 관계와 한반도'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나]는『고등학교 정치와 법』교과 '(6) 국제 관계와 한반도'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06-01]

"오늘날의 국제 관계 변화(세계화 등)를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탐구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4) 인권 보장과 헌법'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는『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과 '(4) 사회사상' 영역의 성취기준 [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 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 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마]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8) 세계화와 평화'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와 관련된다.

2. 문항 해설

○ 문항 해설 1 (10점)

- [가]는 국제 문제를 정의한다. 국제 문제는 개별 국가나 지역을 넘어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한 국가가 해결하기 곤란하며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나]는 국가들이 국제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는 사례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참여하여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 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 [다]는 국가들이 국제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는 사례이다. 불법 이민자 문제는 대표적인 인권 문제이지만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불법 이민자 보호에 나서지는 않는다. 국제 인권 문제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제 문제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문항 해설 2 (20점)

- [라]는 해외 원조에 관한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소개한다.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모두 해외 원조에 관한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해외 원조의 목적에 관해서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한다. 국제주의자인 롤스에 의하면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해외 원조의 의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 롤스에 의하면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없는 해외 원조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자인 싱어에 의하면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의무이다.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경제적 원조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 [마]는 국제연합(UN)과 국제 사회의 강대국들이 리비아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한 예에 관한 것이다. 국제 사회가 개별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지만 무력의 사용이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 [가]의 관점을 활용하여 [나]와 [다]의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갈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 나타난 국제 문제 '협력'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가]에 나타난 국제 문제 '갈등'의 관점에서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10점
2-2	- [라]의 두 관점에서 [마]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라]의 국제주의(롤스)의 관점에서 원조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라]의 세계시민주의(싱어)의 관점에서 원조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2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3]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고등학교 언어와 매체』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5) 현대의 사회 변동'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의 관점에서『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3) 생활 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 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를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3) 생활 공간과 사회'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 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2) 개인과 사회 구조'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와『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 '(4) 과학과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 윤리와 매체 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와『고등학교 정치와 법』교과 '(3) 정치과정과 참여' 영역의 성취기준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한다.

2. 문항 해설

○ 문항 해설 1 (25점)

- [가]의 현상을 요약하고 [나]를 [가]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를 [가]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연관 지어 설명하였는지를 평가함

○ 문항 해설 2 (15점)
- [라]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다]를 해결하는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3. 채점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 [가]에 제시된 SNS 확산이 [나]에 제시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뉴 미디어 등장, 정치 참여 확대의 새로운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 제시된 SNS 확산이 [다]에 제시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피상적 인간관계, 외로움 증가, 가짜 뉴스 확산, 사이버 범죄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부정적 측면이 특별히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연령대에서 더욱 심각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5점
3-2	- [라]에 제시된 도표들과 정보 윤리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개선, 정보 윤리 실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라]에 제시된 해외의 외로움부 설치, 잊힐 권리 관련 법안 사례를 활용하여, 정부가 SNS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15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1)번 문항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해'이다. 인간의 성향은 양면적이라서 상반되게 이해한다. 나의 기준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제각각의 입장에서 남을 보니 서로 흉보는 시끄러운 세상이 된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행한 일이 부당해 보이더라도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이해한다면, 나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남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212자)

[문제 1] (2)번 문항

〔나〕에 등장하는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이 감각 기관을 통한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느낌으로 사물의 겉모습을 이해한다고 본다. 예컨대 감각 기관의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 해가 어떠하다고 말하면서 해를 분명한 실체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장님은 감각 기관에서 자유로워 순수한 추상으로 해를 이해한다.

〔다〕는 공정 무역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다.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가난한 나라에 수익이 돌아가지는 않고,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 무역 인증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그 실효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18자)

[문제 2]

〔가〕에 의하면 국제 문제는 개별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국가들은 그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갈등한다. 〔나〕는 국가들이 국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협력하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해외 원조에 관한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소개한다. 롤스와 싱어는 모두 해외 원조에 관한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두 견해는 주로 해외 원조에 관한 것이지만 국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견해에 의하면 리비아의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마〕의 무력 개입은 국제 문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어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연합 등 국제 사회가 무력을 사용하여 리비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저지한 〔마〕의 행위는 정당하다. (609자)

[문제 3]

〔가〕는 최근 SNS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SNS 이용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나〕는 SNS 사용의 긍정적 측면이다. SNS는 느슨한 연결의 힘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및 개인의 사회화에 도움을 주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 반면 〔다〕는 SNS 사용의 부정적 측면이다. 지나치게 SNS에 몰입할 경우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고,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한 외로움, 인간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가짜 뉴스, 사이버 범죄도 증가한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 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상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의 외로움부 설치, 잊힐 권리 법안 사례 등과 같이 SNS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598자)

2026 단국대 파이널

제 7 강 2024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 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 널리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 사회가 가져온 '전자 패놉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나이, 가족 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근대 관료제와 복지 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또 정보 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배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

정보 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그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했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미국 연방 수사국(FBI)의 국가 범죄 정보 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아이피(IP) 주소나 전자 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모습을 낳았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 주민 카드에는 원래 주민 등록증, 주민 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지문, 운전 면허증, 의료 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이 통합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다.

* 『1984년』 :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1949년에 발표한 소설로 1984년의 미래 사회를 그린 작품. 첨단 기술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전체주의적 절대 권력 앞에 무력한 개인의 모습을 묘사함.
* 빅 브라더 :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등장하는 독재자로, 대중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존재.
* 패놉티콘 :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원형 교도소 이름. 그 형태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쪽의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독하기 위한 공간이 있음.
* 찰스 배비지 : 영국의 수학자로 계산기의 원리를 고안함.
* 보석 :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쿠키 : 특정 웹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만들어지는 정보를 담는 파일.

출처 : 서혁 외, 『고등학교 독서』 (출제진 재구성)

[나] 이 통제 체제는 노동의 전 과정을 따라다니지만,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활동・능력・행동 방식・신속성・열성・품행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직공의 옆에서 이루어지는 장인의 가내공업적인 통제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체제가 사무원・감시인・감독관 등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이다. 생산 장치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됨에 따라, 또 직공의 수가 증가하고 분업이 발달함에 따라, 통제의 업무는 더 필요하고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체제는 분명한 기능을 갖고 생산과정과 완전히 통합해 있어야 하고 생산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닐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공들과 구별되면서 항상 자리를 지키는 전문가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큰 공장에서 모든 일은 종소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공들은 통제되고 거칠게 취급된다. 집단을 상대할 경우에 사무원들은 우월적이고 명령조의 태도에 익숙해져서, 직공들을 거칠게 다루거나 멸시하듯이 다룬다. 그 결과 직공들은 한층 더 높은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보다 소규모의 공장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직공들이 아무리 이 체제보다 수공업 조합적인 형태의 작업 환경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주는 이 체제를 공업 생산 조직이나 사유재산, 그리고 이윤 등과 분리할 수 없는 요소로 인식한다. 공장이나 철공소, 광산 등과 같이 큰 규모의 생산 조직에서도 소모품이 극히 다양하므로 소모품들을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 전체 수입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게 되어 이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본을 잠식해 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눈에 띄지는 않으면서 매일 되풀이되는 별것 아닌 미숙한 행동이 단시일 내에 기업을 파멸시킬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주의 직속으로 직공의 감독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한순간의 노동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역할은 직공들을 감시하고 모든 작업 현장을 점검하며 모든 사건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직공의 감독은 생산도구 안에 내재해 있는 생산의 부품인 동시에, 규율과 징계의 권력 안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톱니바퀴라는 점에서 경제의 결정적인 작용 요소가 된다. 출처 : 미셸 푸코, 「규율」(출제진 재구성)

[다]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김시우입니다.

최근 우리 학교 매점에서 파는 식품을 사 먹은 몇 명의 학생들이 배탈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간식을 먹기 위해 매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이 염려되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학교 매점에서 유해·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초·중·고교 매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버젓이 유해·불량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제2의 가정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고열량·저영양의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가 매점에서 판매하는 유해·불량 식품을 감독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기초 교육을 하면 학생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월 ○일 1학년 3반 김시우 올림.

출처 : 최원식 외, 『고등학교 국어』

문제 2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다]에 나오는 과학 기술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라]를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근대 과학은 그 출발에서부터, 진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치의 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해 왔다. 그리하여 과학에서는 가치 중립이 불가피하고, 그 결

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 기술이 가치의 문제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즉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출처 : 차우규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윤리적 검토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입장은 과학 기술이 그 자체로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요인들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내용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과학 기술을 연구하거나 발견 또는 발명하는 주체도, 활용하는 주체도 인간이므로 과학 기술과 도덕적 가치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과학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조차 과학 체계와 지식 및 기술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것이다. 즉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오늘날 인간은 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동시에, 과학 기술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로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개발 초기부터 과학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그 결과를 예측하여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엄격한 자기 검열의 자세를 갖는 등 내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 기술자는 과학적·윤리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문적 지식을 추구하고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기 등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나 개발 활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여 연구와 개발, 그 활용에 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외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 윤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임 윤리에 따르면,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견하여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출처 : 정탁준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최근 미국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가 유명 인사 1,280명의 서명을 받아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에는 ChatGPT 및 GPT-4를

개발한 연구소 OpenAI를 공동 설립한 일론 머스크,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스테이블디퓨전 개발사인 스테빌리티 AI를 설립한 에마드 모스타크 CEO,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아마존, 구글, 메타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도 서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인공지능 권위자인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컴퓨터과학과 교수, 인공지능 기업 딥마인드의 연구진 등도 서명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서명자들은 GPT-4와 같은 인공지능의 위험 가능성을 적절하게 연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동안 거대 인공지능 개발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원서에 의하면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되어야 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인공지능 연구실은 통제 불능의 경쟁 상태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자조차도 인공지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어하기 훨씬 더 힘든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배포하려는 욕구가 연구실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명자들은 '효과는 긍정적이고 위험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개발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명인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과 경쟁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고 결국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보다 더 영리하며, 인간을 구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대체하게 될 비인간 지성 때문에 인류 문명의 통제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인공지능 연구소가 GPT-4보다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을 최소 6개월 동안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자율적으로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서명 프로젝트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늘 걱정이 많은 '삶의 미래 연구소'가 제안한 일종의 이벤트이지만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ChatGPT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에서 ChatGPT에 대한 기대와 찬사가 도처에 넘쳐 나는 상황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과 그 결과물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기획자 또는 개발자 머릿속에는 없던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그 갈등들이 해결 또는 순치되면서 새로운 기술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동화된다. 사회화 과정이 성숙해지면 법과 제도가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게 되고 사회적 도구로 활용된다.

1,280명의 서명인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아직 우리가 Chat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GPT-4 또는 그 이상의 거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미처 사회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거대 인공지능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갖고 인공지능의 윤리를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저작권과 특허권, 인공지능 무기화 등과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서명인들의 주장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복지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

출처 : 『미디어스』, 2023. 4. 12.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연결 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빈곤이란 다양한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의 빈곤이 계속되면 당사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빈곤은 주로 저임금의 단순 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삶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게 만들어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게 한다. 또한 빈곤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아 한 사회의 빈부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빈곤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소득수준은 전체 소득 분포상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특정 사회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수록 상향 조정된다. 국민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적 빈곤의 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경제 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반면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의 기준에 따르면 빈곤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욕구 수준보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를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며, 주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 손영찬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국내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출처 : 통계청, 2023

<연령 집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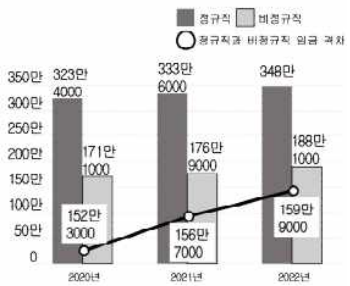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2.2	32.4	32.8	32.9	33.0	36.4	36.3	38.4
연령 집단	15-19세	70.0	74.3	75.2	73.4	74.0	77.8	84.1	85.1
	20-29세	32.0	32.1	32.2	33.1	32.3	38.3	37.7	40.0
	30-39세	21.8	21.1	21.1	20.6	21.0	23.7	22.8	23.0
	40-49세	26.6	26.0	26.1	26.0	25.3	27.0	26.7	28.6
	50-59세	34.6	34.6	34.2	33.9	34.0	35.5	34.3	35.9
	60세이상	68.5	67.2	67.9	67.3	67.9	71.6	71.0	73.7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 근로자 수 ÷ 전체 임금 근로자 수) × 100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을 포함

출처 : 통계청, 2022

<고용 형태별 평균 임금*>

(단위 : 원)



*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출처 : 중앙일보, 2022.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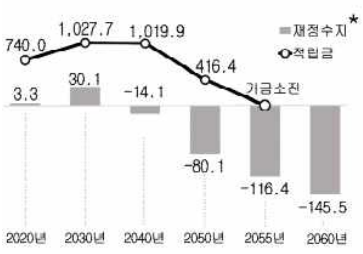
<국내 고령인구 비중 전망>

(단위 : %)

출처 : 연합뉴스, 2022. 1. 13.

<국내 국민연금 기금 전망>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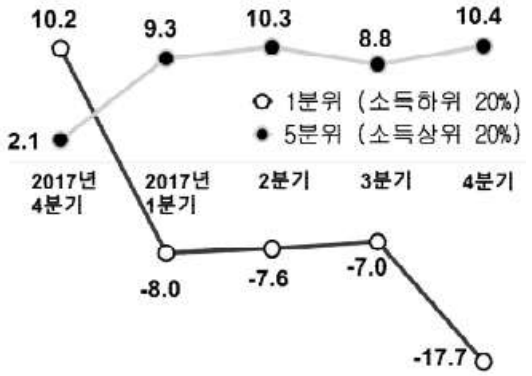


*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금액

출처 : 연합뉴스, 2022. 1. 13.

[다]

<국내 가계 소득 증가율*> (단위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출처 : 통계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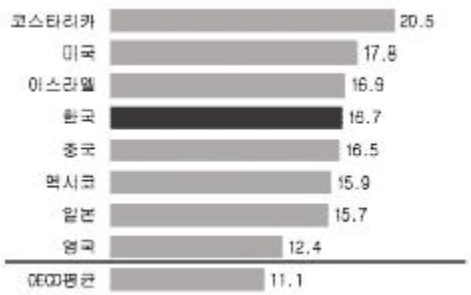
<국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자수 (천명)	1,329	1,646	1,630	1,582	1,744	1,881	2,134	2,360
수급률* (%)	2.6	3.2	3.2	3.1	3.4	3.6	4.1	4.6

* 수급률 : 총 인구 대비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비율

출처 : 국가통계포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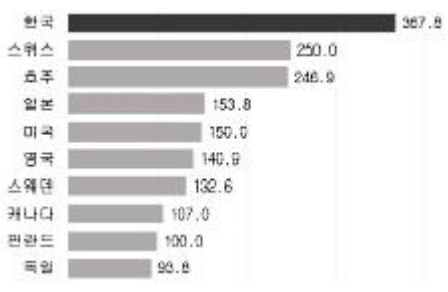
<OECD 주요국 상대적 빈곤율*, 2018~2019년 기준> (단위 : %)



* 상대적 빈곤율: 중위 소득의 50% 미만 비율

출처 :『경향신문』, 2021. 10. 25.

<OECD 주요국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 위험도*> (단위 : %)



* 상대적 빈곤 위험도: 18~65세 빈곤율 대비 비율, 2018년 기준

출처 :『중앙일보』, 2022. 4. 6.

[라]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 (단위 : %)

	부자*	가난한 사람*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88	2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의 힘을 믿는다	86	5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86	26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81	9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80	12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	76	23
자녀에게 매일의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친다	74	1
자녀에 한 달에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킨다	70	3
목표를 기록해 둔다	67	17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는다	63	5
출근하기 3시간 이상 전에 일어난다	44	3

* 부자 : 연 소득 16만 달러, 순자산 320만 달러 이상
* 가난한 사람 : 연 소득 3만 달러, 순자산 5,000달러 이하

출처 :『머니투데이』, 2015. 3. 14.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상대적 빈곤율, 2019> (단위 : %)

국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상대적 빈곤율
독일	25.6	10.9
벨기에	28.2	10.9
스웨덴	25.1	9.1
영국	19.5	12.4
캐나다	18.8	11.5
코스타리카	12.3	19.9
프랑스	30.7	8.4
한국	12.3	16.3
OECD 평균	20.1	11.1

* 사회복지지출: 사람은 누구나 생애과정에서 노령, 장애, 실업, 그리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출된 재원

출처 : OECD, 2021

[마] <사례 1>

한국의 가난한 노인은 폐지를 줍는다. 동네에서 작은 카트나 리어카에 폐지를 쌓아 담고 끄는 노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내다 팔아 먹고사는 노인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학자들은 '폐지 줍는 노인'을 한국만

의 현상으로 바라본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복지 정책은 미흡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등이 맞물리며 빚어진 현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폐지 줍는 노인이 20년 넘게 이어졌는데도 복지 대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다. 명절 때 선물로 주고받은 과일 상자가 누군가에게는 두꺼워서 값나가는 소중한 물건이자 경쟁 거리가 된다는 정도, 아니면 캄캄한 밤에 리어카를 끌다 교통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피상적으로 알 뿐이었다. 정작 이 노인들은 누구이고 얼마나 많은지, 왜 폐지를 줍고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는지는 잘 몰랐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방치돼 온 것이다. 하루 평균 이동 거리 12.3km에 노동 시간은 11시간 20분. 이렇게 일해서 버는 일당이 1만 428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948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의 10% 수준이다. 이처럼 고된 일상을 버티며 생계를 위한 유일한 활동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에 최소 1만 4,800명, 최대 1만 5,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5일 공개한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폐지 줍는 노인의 규모와 생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처음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0. 5.

<사례 2>

"제가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저희 아이도 그럴 것 같아요." 결혼 3년 차인 김석진(가명)씨 부부는 아이가 없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김씨는 현재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음에도 아이를 낳는 게 망설여진다고 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아서다. 그는 "대학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는데, 잘사는 집 친구들은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며 "'금수저'가 아니면 살기 힘든 사회라 생각한다. 굳이 아이를 낳아서 힘든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미서(가명)씨가 남편과 상의해 둘째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도 김씨와 비슷하다. 정씨는 결혼 전만 해도 아이를 두세 명 낳을 생각이었지만, 첫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정씨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도 옛말이지만 요즘은 부모 지원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조차 힘든 사회"라며 "둘을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아 한 명만 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부부가 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적 환경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는 탄생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 10. 17.

제 7 강 2024학년도 모의논술 대학발표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및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정보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와 데이터를 통한 감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방법' 부분에서 '비판적 읽기'의 사례로 제시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생산 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통제 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독서』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분야' 부분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감시와 처벌』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학생이 교내의 식품 안전을 위해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쓰기' 부분에서 '설득하는 글쓰기'의 사례로 제시한 글이다.

2.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 제시된 지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는 문항이다.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감시'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감시'를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정보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와 데이터를 통한 감시를 설명한 글이다. 정보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의 발전,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은 수천만 명의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축적하여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거나 작업자의 업무 처리나 다양한 정보를 찾는 것에 도움을 주지만, 개인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개인의 신상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며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 그의 행동까지 감시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보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고 저장된 개인의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만들어 내었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감시'를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나]는 생산 조직 통제 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한 글이다. 생산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소속 직공의 수는 증가하고 분업은 발달하는데, 이러한 조직과 직공을 통제하는 업무는 더 필요하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통제 체제를 통해 직공을 감시하고 모든 작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 통제 체제를 전담하는 주체는 사무원, 감시원, 감독관으로 이들은 분명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생산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다. 이 통제 체제가 생산과정에서 돈과 노동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때문에, 생산 조직의 대표는 이 통제 체제를 생산 조직이나 사유재산, 이윤 등과 분리할 수 없는 요소로 인식한다. 이러한 통제 체제는 생산도구에 내재한 생산 부품인 동시에 규율과 징계의 권력 안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톱니바퀴라는 점에서 경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감시'를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감시'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학생이 교내의 식품 안전을 위해 교장 선생님께 건의한 글이다. 학교의 매점이 유해하고 불량한 식품을 판매하여 학생들이 배탈이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초・중・고교 매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학교의 매점이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유해하고 불량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제2의 가정이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교내의 식품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감독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감시'를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감시'를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2]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

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 [다], [라]는『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 '(4) 과학과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2.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 [가]는 과학이 진리의 객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는 견해이다. 과학 기술은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에 속하므로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은 윤리적인 가치에 따라 통제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나]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으며, 과학 기술 연구자와 과학 기술 활용자 모두 인간이고 과학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 [다]는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서 자신의 연구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과학 기술자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기 등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끼칠 결과까지도 윤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에 나오는 과학 기술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은 [다]의 내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은 [다]의 외적 책임을 부정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의 관점은 [다]의 내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의 관점은 [다]의 외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 [라]는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일시 중단하라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의 주장을 소개한다. 이 연구소의 주장에 서명한 다수의 유명 인사들은 최근의 인공지능 연구의 무절제한 발전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잠시 중단하고 거대 인공지능이 초래할 각종 위험에 대한 사회적 방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에서 [라]를 비판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나]의 관점에서 [라]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문제 3]

1. 출제 의도

○ 이 문제는『고등학교 국어』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고등학교 화법과 작문』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고등학교 독서』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고등학교 언어와 매체』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와『고등학교 경제』교과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4-0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및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의 관점에서 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15점)

- [가]에 제시된 빈곤의 관점에서 [나]가 원인이 되어 [다]의 결과가 더욱 악화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에서 찾고, 이것이 빈곤층의 교육 기회를 더욱 제한하여 [다]와 같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젊은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현상을 [나]에서 찾고, 이것이 빈곤층의 소득 이동성을 제한하여 [다]와 같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나]에서 찾고, 이것이 고령층의 빈곤을 가속화하여 [다]와 같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25점)

- [라]를 활용하여 [마]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사례 1>을 절대적 빈곤의 문제, <사례 2>를 상대적 빈곤 혹은 주관적 빈곤의 문제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라]에 제시된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 자료를 활용해 '개인적 노력' 관점의 빈곤 해결 방안

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라]에 제시된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상대적 빈곤율> 자료를 활용해 '사회적 노력' 관점의 빈곤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대학발표 예시답안

[문제 1]

1번) 문항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감시이다. 정보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 사회에서는 개인의 과거를 조회하고, 개인의 신상 정보가 기업에 유출되며,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 그의 행동까지 감시당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처럼 정보 사회에서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가 만들어졌다. (197자)

2번) 문항

〔나〕는 생산 조직의 통제를 위한 감시의 역할을 설명한 글이다. 생산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통제의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생산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감시를 통해 통제가 가능해진다. 생산 조직의 대표는 생산과정에서 돈과 노동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의 역할을 사유재산이나 이윤과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다〕는 교내 식품 안전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한 글이다. 학교의 매점은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유해하고 불량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제2의 가정인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380자)

[문제 2]

〔가〕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과학의 목적은 진리 탐구이기 때문에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윤리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의 관점은 〔다〕에서 말하는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외적 책임은 부정할 것이다. 내적 책임은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위해 필요하지만, 외적 책임은 진리 탐구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나〕의 관점은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인정할 것이다. 과학 기술은 윤리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일시 중단하라는 유명 인사들의 주장을 소개한다. 이들은 인공지능의 통제되지 않은 개발은 인간의 복지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제약해서는 안 되므로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통제하자는 〔라〕를 비판할 것이다. 반대로 〔나〕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라〕에 동의할 것이다. (598자)

[문제 3]

〔가〕는 빈곤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나〕는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의 만연화, 그리고 60대 이상 노령 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나타낸다. 〔다〕는 사회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커지고, 절대적 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상대적 빈곤율도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나〕는 〔다〕에 나타난 빈부 격차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 〔마〕에 나타난 폐지 줍는 노인이 경험하는 절대적 빈곤과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상대적 빈곤 혹은 주관적 빈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빈곤의 모습은 〔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력하지 않는 무기력한 인간이라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적 차원의 지원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노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는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능력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사회 보장 정책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32자)

DKU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지 (인문계열)

모 집 단 위	
감독관 성 명	
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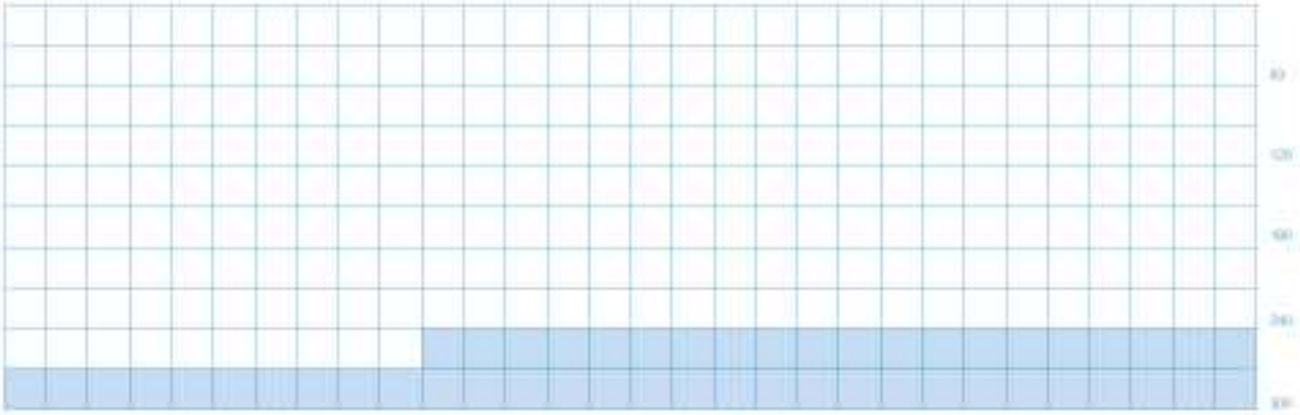
수 험 번 호						
A	1					
●	⓪	⓪	⓪	⓪	⓪	⓪
①	●	①	①	①	①	①
②	①	②	②	②	②	②
③	②	③	③	③	③	③
④	③	④	④	④	④	④
⑤	④	⑤	⑤	⑤	⑤	⑤
⑥	⑤	⑥	⑥	⑥	⑥	⑥
⑦	⑥	⑦	⑦	⑦	⑦	⑦
⑧	⑦	⑧	⑧	⑧	⑧	⑧
⑨	⑧	⑨	⑨	⑨	⑨	⑨

생년월일 (예: 061103)					
⓪	⓪	⓪	⓪	⓪	⓪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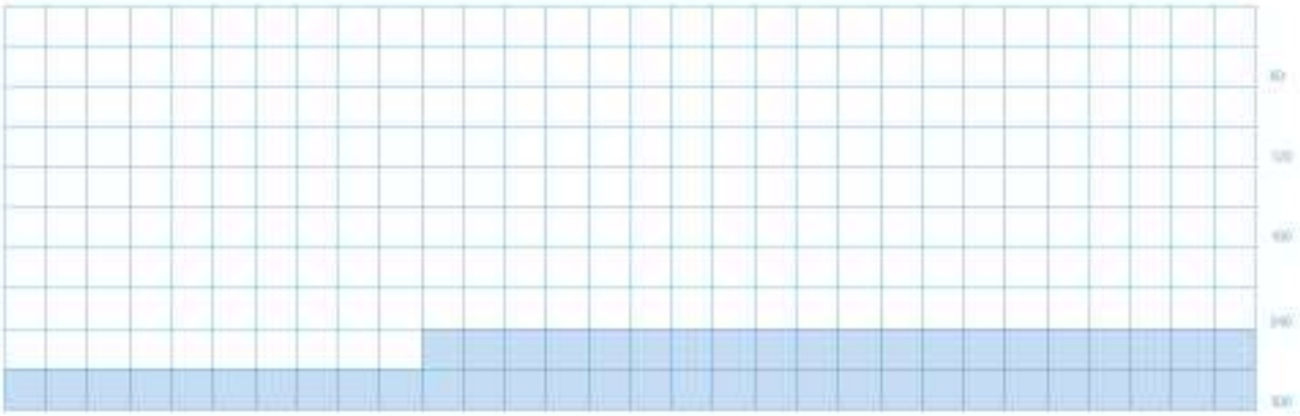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답안 작성란에 개인정보(학교명, 성명 등)를 유출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생 인적사항과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샤프연필이나 파란색 볼펜류, 연필, 수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3.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은 반드시 정해진 답안 작성란 안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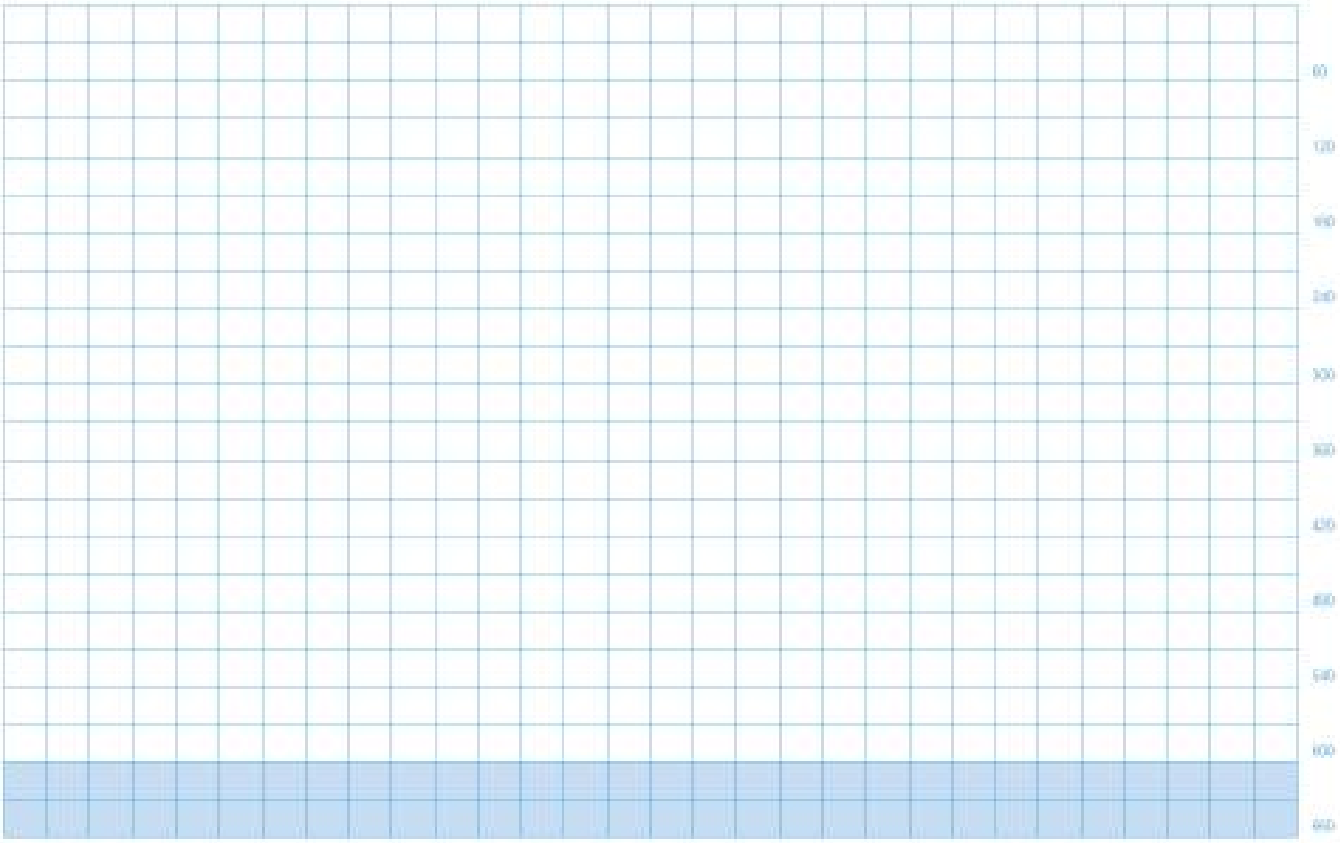
문제 1 - 논제 1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250자 내외)



문제 1 - 논제 2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250자 내외)



문제 2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600자 내외)



문제 3 (반드시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600자 내외)